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1-833-846-4004

중앙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158호

Thursday, October 24, 2024 A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2024 중앙포럼'이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종근 대한노인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모리스 오프펠드 UC버클리 교수, 로버트 케이건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뒷줄 왼쪽부터 강한승 쿠팡 대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이동욱 HD현대사이드솔루션 대표,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추진협의회 위원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네셔널 대표,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 문홍성 두산 대표, 류열 에스오일 사장, 이한준 LH 사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성래은 영원무역홀딩스 부회장, 김재욱 동원그룹 부회장. 장진영 기자

“한·미, 핵기반 대체불가 동맹”

“이익에 따라 헤어지는 관계 아니다”
우원식 “신냉전 구도 속 국익 실현을”
홍정도 “어느 행정부가 들어서든
한·미동맹은 이제 변수 아닌 상수”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며 “이제 한·미 동맹은 양국
공동의 번영을 이끌고 세계 평화를 증
진하는 ‘대체 불가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2024 중앙포
럼’ 축사에서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미
국 대선과 관련해 “한·미 동맹은 단순
한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
적 계약 관계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동맹
이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동맹”
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
령의 축사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 국민
방문을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격상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을 중심으로 한 ‘한·미 일체형 확장역
제’ 태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역
제 핵자전 지침’ 승인 등 그간의 한·미
동맹 성취를 언급하며 “한·미 동맹은
이제 자유의 가치에 기반한 안보·경제·
첨단기술·정보·사이버 분야를 망라하
는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양국의
미래 세대에게 무한한 기회의 장을 제
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한국은 동맹의 일방적 수

혜자가 아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 가운데 대한
민국만큼 강한 군사력과 방위산업 능
력을 갖춘 나라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
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한·미
일 3국이 구축한 ‘캠프데이비드 협력체
계’를 거론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인류의 자
유를 수호하고 공동의 번영을 이뤄내
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허진 기자
▶ 15면 ‘한·미 동맹’으로 이어집니다

타이슨스 카지노 설치 찬성 시위 벌어져

노조단체 연합시위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
앞에서 타이슨스에 카지노를 허용하
라고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고용연합 등 6개 노
동조합단체가 연합한 이번 시위에서
는 “리조트 형식의 카지노가 들어설 경
우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적 이익이 크
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 의회에는 최근 2년간 계속
타이슨스에 카지노를 설치하자는 법
안이 상정됐다. 현행 버지니아 카지노
규제법률에 의하면, 시티 정부 관할 행
정구역에만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다.
법안에 의하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카운티 정부 관할 행정구역도 카지노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포함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버지니아에서 유
일하게 인구 100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이 법안은 사실상 페어팩스 카운
티 카지노 허용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
고 있다. 법안에는 또한 실버라인 메트
로 전철역과 0.5마일 이내에 위치하고
델레스 공항과 벨트웨이 사이의 주상
복합건물 프로젝트에 포함시킨다는 내
용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
시키는 곳은 레스톤 타운센터와 휠레
레스톤 이스트 전철역, 헌던 이노베이
션 센터 전철역 뿐이다.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대부
분은 카지노 건설에 반대하고 있지만
유일한 공화당 소속 수퍼바이저 팻 헤
리티는 “카지노 설치 후 장단점을 비교
해봐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
하고 있다.

노조단체는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보편화되면서 타이슨스 지역 사무실
공실률이 급격하게 높아져 재산세 부
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욱재 기자

추방위기 한인, 역대 최저 수준

이민법원 회부 건수 472건
전년에 비해 22.0% 감소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넘겨져 추방 위
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 수가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
가정보센터(TRAC)가 집계, 발표한 연

방 이민법원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미 전역 이민법원
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재판 건
수는 총 472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2~2023회계연도 605건에
비해 22.0% 줄어든 것이며, 2021~2022
회계연도 866건과 비교해서는 45.5%
감소한 수치다. TRAC이 데이터를 집

계해 발표하기 시작한 2011~2012회계
연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동안 한
인 이민자들의 추방재판 계류건수 추
이를 보면, 2016~2017회계연도에 672
명으로 증가 전환한 후 5년 연속 증가
세를 이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2019~2020회계연도 당
시엔 이민법원에 회부 건수가 1026건,

2020~2021회계연도에는 1057건까지
늘어났지만 최근 들어 다시 줄고 있다.

한편 2023~2024회계연도에 전국 이
민법원에 계류 중인 총 추방재판 건수
는 371만610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계류된 건수(279만
4629건)와 비교하면 33% 폭증한 수준
이다.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
들이 많아지면서 추방재판 건수가 급
증한 것으로, 이중 159만명 이상은 공
식 망명 신청을 제출했다. 김은별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머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한인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물렌지 팔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지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 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북우크라 파병 미 정부 첫 확인...국정원 “연말까지 1만명 갈 듯”

국회 정보위, 비공개 긴급 간담회 “북, 지난주 1500명 이어 1500명 추가 파병 숨졌지만 소문 돌며 내부 동요”

국가정보원에 이어 미국 국방장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확인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언급하면서 “(관련)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 고위 관계자가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백악관 등은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오스틴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정확히 될 하고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에 북한군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북·러가) 공동 교전국이라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당국은) 지금까지 약 2500명의 북한군이 파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라 다클랄라 나토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나토 회원국들은 북한이 러시아로 군대를 파병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며 “북한 군대가 우크라이나로 향한다면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대



미사일기지, 우크라 파병 - 김정은은 협박 전략 1 북한군 전략미사일 기지를 시찰하는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2 전략미사일 기지에 가기 위해 좁은 숲길을 걷는 김정은은. 이후 미워 기지 출입구가 으폐된 지하 격납고(사일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3 러시아 독립 언론 아스트라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지상군 제127사동소총사단 기지에 도착한 북한군 병사들이라고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 북한의 지원이 크게 확대되고 러시아가 최전선에서 상당한 손실을 보았다는 또 다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23일 “현재까지 러시아로 북한군 병력 1500여 명이 더 파견돼 모두 3000여 명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1만여 명이 파병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 대가가 1인당 월 2000달러(약 280만원) 수준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현황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18일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지난 8~13일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원 발표와의 차이점은 현재 추가로 1500여 명이 더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라며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 규모는 3000여 명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은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에 투입될 것이라는 상당한 근거 있는 첩보를 제시했다”며 “1만여 명 파병이 완료되는 시점은

12월께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북한군 병력은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소위 최정에 11군단, 폭풍군단이 파견돼 러시아 다수 훈련시설에 분산돼 현지 적응 중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폭풍군단은 북한군 특수작전군 예하의 정예부대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격전지에 배치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의원은 “북한의 파병 의도에 대해서는 북-러 군사동맹의 고착화, 유사시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개입 유도, 군 현대화 가속 필요성 등으로 국정원은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대규모 파병에 따른 북한 내부 동요도 감지했다. 이 의원은 “북한 당국은 러시아 파병 관련 사실을 일절 내부에 알리지 않고 있지만, 파병 개시 이후에 주민들 사이에는 ‘폭풍군단이 러시아에 파견됐다’는 소문이 유포되는 상황”이라며 “더 나아가 선발군인 가족이 크게 요열한 나머지 얼굴이 많이 상했다는 등의 말까지 회자한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철저한 입단속과 함께 파병군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해 이들을 모처로 집단 이주해 격리하고 있는 상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김성진·김효성·배재성 기자

북, 미국 타격 가능한 ‘화성-18형’ 요새 첫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무기가 집결해 있는 전략미사일 기지를 처음 공개했다. 김정은은 직접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미사일을 둘러보고 “핵 무력의 철저한 대응 태세”를 주문했다. 미국 대선을 2주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앞세워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긴장 고조를 통해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분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23일 김정은이 “전략미사일 기지들을 시찰했다”며 “미사일 기지들의 발사 관련 시설 요소별 기능

과 능력, 전략미사일 전투직일근무(당직근무) 상태 등 나라의 안전과 직결된 전략적 억제력의 가동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전쟁 억제력에서 전략미사일 무력은 중추를 이루는 핵심 역량”이라며 “앞으로도 전략미사일 무력을 우선적으로, 무력 전반을 기술 현대화하는 것은 우리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국방건설 전략의 중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여러 번 강조하였지만 미국의 전략적 핵수단들이 공화국의 안전 환경에 주는 위협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전망적인 위협들도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보다 확실하게 제고하고 핵 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엄격히 갖출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매체나 김정은이 “전략미사일 기지”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실제 장소를 일부라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전략미사일 기지를 방문한 날짜나 해당 기지의 위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정은이 좁은 숲길을 따라 해당 기지에 출입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으로 미뤄 전문가들은 출입구가 으폐된 지하 격납

고(사일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전략미사일 기지들을 더욱 현대화·요새화하고 모든 기지가 각이한 정황 속에서도 임의의 시각에 신속히 적수들에게 전략적 반타격을 가할 수 있게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말인 ‘반타격’은 반격을 의미하는데, 전략적 반타격은 적의 선제공격에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증 보복 능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제2격’ 또는 ‘2차 공격(Second Strike)’ 능력을 확보했다는 주장이자, 이를 명분으로 언제든지 핵공격이 가능

하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고도 볼 수 있다.

“전략미사일 기지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끈다. 신문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신형 ICBM ‘화성-18형’과 미국령 괌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2나’형으로 추정되는 전략미사일을 살펴보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런 미사일을 비축하고 있는 기지가 한둘이 아니라는 걸 시사해준다.

김정은의 이런 행보는 박빙의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워싱턴 날씨 (°F)

25일(금) 68~54	28일(월) 61~43
26일(토) 69~46	29일(화) 70~52
27일(일) 60~43	30일(수) 76~60

10월 24일(목) 67~43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DC 리커 + 건물
다시 리커와 코너 건물 포함 주인이 리커 운영하실분 2백5십만불

DC 리커
35만불, 2000 SF, 창고있음 렌트 6천불

인기 많은 K-HOT DOG집
포토백업, 한달 1만3천불 순수익 주인없이 운영중 25만불

페어옥스몰
버블터, 핫도그 양념치킨 해보실분 2000SF, 렌트8000불, 7만불

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0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의 \$218,000

DC 유명 델리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임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상가 임대수입
DC - 식당임주한 건물 2백6십만불 3000 SF 북중, 월순수입 \$11,000

상가 임대수입
상가 8백만불, 비엔나, 버지니아 연순수의 52만불, 8백만불

페어팩스 오피스 두개 매매
\$520,000 페어팩스 코트하우스와 가까운 위치

상가 임대수입
발티모어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

Beer and Wine
주매상 17,000불, 버지니아 북권 매출 3등 VA 알링턴, 25만불

상가 임대수입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

Beer and Wine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MD 몽고메리카운티, 조건부 임대계약, 50만불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디시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NE REALTY ONE GROUP CA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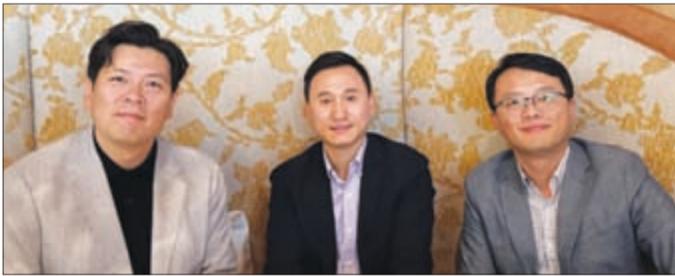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www.dwellwashington.com

디아스포라 다니엘기도회 열린다



미주 한인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2025 미주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가 내년 3월 16일(주일)부터 22일(토)까지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목사 류영렬, KCPC)를 중심으로 미주 주요 지역을 연결해 초교파적으로 봉헌된다.



(왼쪽부터) 성보영 목사(지역교회협력 코디네이터), 주성하 목사(운영위원회 팀장), 박상근 목사(KCPC 행정)

내년 3월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미주 전역 연결

다니엘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개신교 기도모임으로 한국에서 큰 명성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 3월, 미주 최초로 달라스세미교회(담임목사 이은상)에서 개최한 데 이어 두번째로 워싱턴지역에서 열리는 기도회이다.

내년 기도회 홍보를 위해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회의 주성하 목사가 방미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목사는 “다니엘 기도회의 정신은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려 하는 것”이라면서 “미주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는 한인교회의 영적 회복을 꿈꾸는 연합기도회로서 KCPC 현장 예배당과 인터넷 생중계로 미주 전체를 연결하는 기도회”라고 소개했다.

내년 미주 디아스포라 다니엘기도회는 미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7월 동안 기도회 지역을 순회하며, 첫날 16일(주일)은 미주 전체를 위해, 17일(월) 뉴욕,

18일(화) 뉴저지, 19일(수) 필라델피아, 20일(목) 메릴랜드, 21(금) 버지니아, 22일(토) 워싱턴DC 지역을 위해 기도한다. 또한 해당 지역 목회자가 참석해 사회 및 기도인도를 함으로써 미주 지역 전체가 하나로 연합하는 기도회 형식을 취한다.

공식적인 기도회에 앞서 15일(토)에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와 지역 유스(YOUTH) 사역자들을 초청해 어린이, 청소년 다니엘 기도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18일(수)에는 다니엘 기도회 준비위원장 김은호 목사가 워싱턴에 방문해 미주 디아스포라 발대식을 갖는다.

주목사는 “기도회를 통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교회 규모와 교단, 교파를 초월한 영적 연합이 일어나길 소망한다”며 “세계를 이끌고 있는 미국 워

싱턴에서 열리는 기도회의 은혜가 넘쳐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에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서 진행되는 79차 다니엘기도회를 위해 이달 1일부터 한달 간 준비기도모임이 출발했다. 주목사는 “다니엘 기도회의 영적 승부는 준비기도회로 영적 흐름이 이어져 판도가 결정된다”며 “내년 앞둔 미주 디아스포라 다니엘기도회를 위해서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준비기도회에서부터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주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교회에는 포스터, 가이드북, 기도카드 등 홍보패키지를 배포하고 있다.

문의: 617-678-5104 성보영 목사(지역교회협력 코디네이터) 김윤미 기자

특파원 칼럼

주미대사가 ‘미국법 위반’ 자인한 이유

지난 11일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현동 대사는 “현지 채용 직원들의 급여가 DC의 최저임금보다 낮아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총원의 어려움을 호소한 말이다.

그런데 조대사는 해당 발언을 하면서 “이 내용은 현안보고엔 빠져있다”고 했다. 그의 말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실태에 가까운 의미이기 때문이다.

법으로 정한 DC의 최저시급은 7월부터 17.5달러가 됐다. 1년 52주, 주 40시간 근무한다는 전제로 단순 계산한 최저연봉은 3만6400달러다. 이를 12달로 나눈 월급은 3033달러가 넘어야 한다. 대사관 현지 인력의 초급인 ‘3000달러 전후’보다 높다. ‘불법 구인’을 해야 하는 대사관엔 구멍이 뚫리고 있다. 당장 영사관 민원 창구 6개 중 1개가 폐쇄됐고, 남은 5개도 정년이 도래한 직원 2명을 설득해 간신히 운영하고 있다.

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더니, 항소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했다. 주미 캐나다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현지 채용자가 다친 뒤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미국법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었다. 1심 법원은 ‘외국 주권 면책법(FSIA)에 따라 미국법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항



강태화 워싱턴 특파원

소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고용 관계에선 대사관도 미국법이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익명을 원한 외교관은 “대사관에선 민감한 정보가 다뤄진다”며 “예산 때문에 고급 인력을 뽑지 못하면 자칫 보안에 치명적인 인사가 의도적으로 유입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기사는 북한과도 동시 수교한 국가에 부합한 외교관을 취재한 적이 있다. 그는 차량 이동 내내 “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용 때문에 채용한 현지인 운전기사를 믿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현지 채용과 관련한 비용 문제는 외교부 공관장 회의 때마다 제기돼왔다. 그러나 매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국감에서도 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임금과 물가 등을 무시한 채 “해의 업무를 하는 공기업의 미국 채용자 중엔 1억 연봉자가 많은데 인원에서 채용한 직원의 연봉은 876만 원에 불과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고물이 지역에서 채용한 직원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IRS, 내년 과세 소득 2.8% 상향

인플레이션 둔화로 소폭 인상

국세청(IRS)이 2025년 과세기준을 발표했다. IRS가 발표한 내년 과세기준 인상 폭은 2.8%로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예측과 일치했다.

이는 2024년(5.4%)과 2023년(7.0%)에 비하면 소폭 인상된 것이다. 팬데믹 기간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계

내년 인상 폭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 소득(capital gain)에 대한 면세 기준도 증액됐다. 2024년 기준 독신과 부부공동보고의 면세 기준은 각각 4만 7025달러와 9만4050달러였다. 내년에는 4만8350달러와 9만6700달러로 오른다.

상속세와 증여세(estate and gift tax)의 연간 면세 기준 또한 상향조정됐다. 2024년 1361만 달러였던 상속세

기준은 내년 1399만 달러로 올라갔다. 2025년 증여세 기준은 2024년의 1만 8000달러에서 1000달러 오른 1만9000달러로 정해졌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세 혜택 기준은 2026년에는 대폭 하향될 수도 있다. 2018년에 발표된 개정세법(TCJA)의 기간이 2025년까지이기 때문이다. TCJA로 인해 두 배 이상 늘었던 면세 기준은 추가 조치가 없다면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희 기자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식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22일(한국시간)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대에서 개막했다. 이날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이상덕(왼쪽 네 번째) 재외동포청장과 한덕수(왼쪽 다섯 번째)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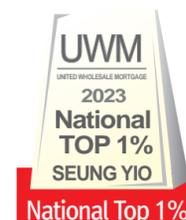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WWW.UMNLOAN.COM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3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 지점이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Lender Licensed State : NJ, DE, PA, MD, VA, WV, NC, SC, GA, AL, FL, TN, MI



대표전화 : 703-204-0022 | 703-899-8660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CEO **손여 Sean H Yio**
NMLS #: 262952 / M.B.A., MS Finance



전세계가 “아파트, 아파트” 로제 노래에 빠졌다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블랙핑크 로제가 한국의 술자리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아파트’(APT.)가 중독성 강한 후렴과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에 힘입어 국내외 음악 차트를 강타했다. 22일 스포티파이 기준으로는 글로벌 톱50 1위를 비롯해 미국·캐나다·호주 등 10여개 국가 정상에 올랐다.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국내 여성 솔로 가수가 1위에 랭크한 것은 로제가 최초다.

유튜브 쇼츠, 틱톡 등에는 ‘아파트먼트(Apartment)’의 한국식 영어 ‘아파트’를 어설피게 발음하는 외국인의 영상이 넘친다.

세계적인 팝스타 찰리 푸스는 틱톡 계정에 “아파트”를 되뇌는 영상을 올리며 “영원히 내 머릿속에 갇혀버렸다”고 적었다. 20일 브루노 마스의 브라질 콘서트에선 ‘아파트’를 떻창하는 관객들 모습이 포착됐다.

로제는 뮤직비디오 1억 조회수를 돌파하자 소속사를 통해 “친구들과 즐겁게 하던 게임을 소재로 스튜디오에서 놀다가 자연스럽게 쓴 곡인데, 많은 사람이 듣고 즐겨주셔서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노래의 흥행으로 윤수일의 명곡 ‘아파트’(1982) 또한 주목받고 있다. 윤수일은 23일 MBC 표준FM ‘순태인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아파트’가 엄청난 화제를 모은 덕분에 내 노래도 역주행 중이란 소식을 들었다”면서 “아파트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건 아주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지영 기자

밀워키 신문의 한국사랑... 72건 특집 보도

6·25파병, 입양아·탈북민 정착 등 한국 현대사와 밀워키 오랜 인연

위스콘신주 최대 도시 밀워키시 한 지역매체가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등 분야별 심층 보도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 매체는 한국 광복 이후 6.25 전쟁 참전, 전쟁고아 지원, 한인 입양아 입양 등 위스콘신주가 한국 근현대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2024 한국 바로알기에 나섰다.

지역매체 ‘밀워키 인디펜던트’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한국 탐험-밀워키부터 비무장지대까지&분단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이야기 (EXPLORING KOREA: Stories from Milwaukee to the DMZ and across a divided peninsula)’를 주제로 한 특집 보도를 하고 있다.

이 매체는 이번 특집 보도를 위해 지



밀워키 인디펜던트는 25일까지 한국 특집 시리즈 기사 72건을 보도하고 있다.

[밀워키 인디펜던트 캡처]

난 7월부터 9월까지 밀워키 일대 한인 사회와 지역사회, 한국 현지취재에 나섰다. 이를 통해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인물의 개인사는 물론 북한을 포함한 한국사회 분야별 현주소를 짚었다.

특히 14일부터 시작된 특집 보도는 하루 평균 기사 6쪽에 달한다. 이번 한국 특집 보도 기사는 총 72건이나 된다.

이 매체는 온라인 특집 보도 메인화면에 “한반도 전역의 유적지와 문화적 전통을 탐구해 밀워키의 정체성도 찾아보는 다리를 놓고자 한다”며 “밀워키 지역은 한국의 일제강점기 및 미군 정 시기,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참전용사를 보냈다. 이후 밀워키에서 자란 한인 입양아, 아메리칸드림을 위해 밀워키로 이주한 한인 디아스포라, 북한에서 탈출해 밀워키에 정착한 이들까지 수십 년 동안 한국과 미국 여러 세대가 경험을 공유했다”고 특집 보도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특집 보도 시리즈는 한국 DMZ에서 경비병 미군으로 복무한 존 치솔름 이야기, 한국 전쟁과 분단, 한인 입양아 제시카 보링의 밀워키 성장

사,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 국호 변천사, 88서울올림픽과 냉전, 위스콘신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한국의 저출생 현상, 밀워키 한인의 문화 교류, 밀워키 한국 역사박물관 사업, 메가시티 서울의 현재 모습,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북한과 김정은, 서울에 정착한 탈북동포, 정의를 위한 위안부 소녀상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매체는 한국 현지 취재 결과 한국의 현재 목소리와 역사적 관점을 자세히 담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밀워키 지역 한인사회, 한인 입양아 가족 이야기를 통해 한인 정체성과 밀워키 문화와 역사가 어떻게 결합했는지도 짚었다.

한편 밀워키 인디펜던트 한국탐험 특집 보도는 웹사이트(mkeind.com/koreanstories)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제 기자

조지아주 한복의 날 선포식

스트릭랜드·샘 박 의원 참석

조지아주 정부가 올해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선포했다.

이날 한복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애틀랜타 한인사회 인사들과 한복 기술진흥원 미주지회 관계자들이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있는 주청사에 모였다. 조지아 한복의 날(HR 1701) 제정을 주도한 샘 박 주 하원의원은 행사에서 한복의 날이 갖는 의미를 설명한 뒤 선포문을 이은자 한복기술진흥원 미주지회장에게 전달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하기 위해 애틀랜타를 찾은 한인 메릴린 스트릭랜드(위싱턴주) 연방하원의원은 자신이 “한복과 연이 깊다”며 축사를 전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2021년 첫 당선된 뒤 의원 선서식에서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이 한복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샘 박 의원.

한복을 입고 등장에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당시 91세인 어머니가 TV 중계 화면에서 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복을 입었다”며 “또 팬데믹 기간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감정에 대항하고자 한복을 입은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상표 애틀랜타 총영사, 오영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랜타협의회장, 미셸 강 주 하원의원 후보 등도 축사를 전했다.

한복기술진흥원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한복 전시회를 개최한다. 김린다 미주지회 이사는 “2000년도부터 한복 알리기 사업을 해왔는데, 이제 결실을 맺었다”며 궁중 예복이 갖는 의미와 복원 과정 등을 알렸다. 애틀랜타 공항 전시회는 24일 오전 11시에 오픈 행사를 갖고 시작된다.

글·사진=윤지아 기자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2.8%로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의 예상 성장률은 3개월 전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IMF는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을 7월보다 0.1%포인트 낮은 3.2%로 예상했다.

IMF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8%로 전망하며 지난 7월보다 0.2%포인트 높였다.

미국의 내년 성장률은 재정 정책 축소와 노동시장 냉각에 따른 소비 둔화로 2.2%로 낮아질 전망이지만, 7월 전망보다는 0.3%포인트 높았다.

유로존은 올해 0.8%, 내년 1.2%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는 7월보다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한영혜 기자



버지니아의 투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투표의 힘을 믿으세요.

선거일은 11월 5일입니다.
직접 사전투표는 11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VOTE.VIRGINIA.GOV에서 알아보세요

한인 여성 선출직 54년간 103명 배출

KAI 미주한인정치연감 ③·끝

1970년 엘러노어 김 첫 당선
주의회 최초 입성은 도나 김
90년대부터 동부서 속속 당선
반세기만에 연방의회도 입성



엘러노어 김



도나 메르카도 김



재키 영



마사희

1950년대부터 한인 선출직이 미국에서 탄생한 가운데 여성 선출직 역시 1970년 엘러노어 김 차우 몬테벨로통합교육구 위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배출됐다. 차우 위원은 1970년부터 1993년까지 해당 교육구 위원을 지냈다.

본지가 비영리재단인 코리아 아메리칸 인스티튜트(KAI·회장 마크 김)가 최근 발표한 미주한인정치연감을 분석한 결과 1950년대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231명의 한인이 선출직으로 활동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남성 128명, 여성 103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22년 휘티어 데일리 뉴스에 실린 차우의 부고 기사에 따르면 그는 폐질

환을 앓다 그해 7월 10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차우는 대학 재학 중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학교를 그만두고 한은행에서 근무하게 됐다.

이후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교육구 위원에 당선됐다. 부고 기사에 따르면 그의 한 동료는 차우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했다.

다음으로 선출된 한인 여성은 도나 메르카도 김이다. 그는 하와이주 하원의원(1982~1984), 호놀룰루 시의원(1986~2000), 하와이주 상원의원

(2016~2020)을 지냈다. 여성으로는 최초로 주의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재키 영이라는 여성이 하와이주 하원의원으로 활동했다. 2019년 2월 스타어드버타이저에 실린 부고 기사에 따르면 그는 뇌졸중으로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동료들은 “재키는 초창기 페미니스트 운동에 나선 핵심 인물이었다”며 “여성의 권익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었다”고 전했다.

마사 최라는 인물의 경력도 눈에 띈다. 그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시애틀 시의원을 지냈다. 이후 워싱턴주 상

무부에서 국장을 지냈고 2004년부터는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활동했고 최고관리책임자(CAO) 자리까지 올랐다.

1990년대에 들어 한인 여성 선출직의 수가 점차 늘어나며 기존 서부와 하와이 지역에 국한됐던 정치인들이 동부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미미 김 맥앤드류스(플로리다주 하원의원·1992~1994), 패티 김(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의원·2013~2024) 등을 동부 지역 주의회에 당선된 초창기 한인 여성 선출직으로 꼽을 수 있다.

2020년 선거에서는 한인 여성인 캘리포니아 공화당 소속 미셸 스틸과 영김, 메릴린 스트라랜드(워싱턴·민주)가 연방하원에 입성했고 연임에 성공, 모두 올 11월에 3선에 도전한다.

현역 연방 한인 정치인은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하원의원(뉴저지·민주)까지 총 네 명이다. 이들의 정치성향은 공화당 두 명과 민주당 두 명으로 균등하게 나뉘어 있다. 김영남 기자

실업수당 담당 한인 공무원 '청구인에 성매매 제의' 기소

사회보장국(이하 SSA)에서 일하던 30대 한인 공무원이 실업 수당 신청자에게 수개월간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유부남인 이 공무원은 SSA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 여성의 연락처를 입수했다가 이후 법집행기관의 잠복 수사를 통해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은 매사추세츠주 SSA에서 일하던 김대성(35·오번 거주)씨가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21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8일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해 매사추세츠주 가드너 지역의 SSA 사무소를 방문한 여성에게 성관계 대가로 금전을 제안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소장에는 실업수당 담당자였던 김씨가 이 여성을 거주 지역 인근 SSA 사무소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연락처를 입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이 여성에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이해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이 여성에게 100달러를 제안하며 호텔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했다.

이러한 김씨의 제안은 수개월간 이어졌고 결국 피해 여성은 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결국 잠복 수사관이 3개월간 피해 여성으로 가장해 김씨와 연락을 주고 받았고 지난 11일 피치버그 지역 그레이트윌프라지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피해 여성을 만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간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치버그 지역은 김씨가 사는 오번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져 있다.

22일 워싱턴타임스는 “당시 김씨는 피해 여성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대신 돌봐줄 사람까지 섭외했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최대 징역 20년, 보호 관할 3년, 벌금 25만 달러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슈링크플레이션 확대로 소비자 부담 커진다

용량 줄어 결국 가격인상 효과

가격은 그대로지만 제품량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현상이 퍼지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 랜딩트리가 2019년과 2024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100개 주요 소비재 가격을 추적한 결과 약 3분의 1이 팬데믹 이후 크거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고 CBS가 최근 보도했다.

팬데믹 이후 공급망 대란 등으로 원료, 인건비 등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가격을 유지 또는 인상하면서 제품 크기나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식료품 위주에서 다른 생활용품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로서리에서 쇼핑하는 소비자들. [로이티]

랜딩트리에 따르면 화장지, 종이 타월과 같은 가정용 종이 제품 20개 중 약 60%가 시트 수를 줄인 것으로 조사돼 슈링크플레이션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값에 양이 줄어들어 따라 세븐스 제너레이션 재활용 종이 타월 6개들이는 100장당 가격이 1.70달러에서 2.70

달러로, 바운티셀렉트-A사이즈 종이 타월 6 트리플롤은 1.51달러에서 2.12달러로 각각 오른 셈이 된다. 스콧의 다목적 솜 타월2롤 제품만 4.28달러에서 4.25달러로 유일하게 가격이 인하됐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 제품으로 조사 대상의 약 44%에서 용량이 줄어들었다. 켈로그의 프로스티드플레이크스는 기존 24온스에서 21.7온스로 줄어 온스당 가격이 40% 인상됐다.

이외에도 사탕류 제품의 38%가 줄어든 용량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리스의 미니어처스 파티 사이즈는 40온스에서 35.6온스로, M&M 밀크 초콜릿 파티 사이즈도 42온스에서 38온스로 줄었다. 간식류 제품 역시 27%에서 용량이 감소했는데 프리토레이의 파티 사이즈 치토스는 17.5온스에서 15온스

로 줄어 온스당 가격이 17센트에서 40센트로 급등했다.

랜딩트리의 수석 크레딧 애널리스트 매트 솔츠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재정적 여유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 같은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계 예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인상된 제품은 소비자가 가격 변동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예산에 반영하기 쉽지만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은 변화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정을 악화시키는 불청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슈링크플레이션 이외에도 일부 제품에서는 가격과 형태는 그대로 두고 제품의 재료 함량이나 서비스 질을 낮추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업체들이 증가한 생산비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절인 **마이클 장**

절인과 함께하시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Banking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B2501870; MD 2501870; NC L-219066; VA MC-7782; TX 2501870; PA 106923;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이락조)빌딩
웨이리노래방

40
300m
뉴타운홈

미락조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보잉이 만든 통신용 위성, 우주에서 폭발

보잉사가 만든 통신용 위성이 우주에서 폭발했다고 CBS 방송 등이 23일 전했다.

세계적인 상업용 위성 운영업체인 인텔샷은 보잉이 만든 '인텔샷 33e' 위성이 지난 19일부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작동이 중단된 뒤 약 이틀 만에 "완전히 손실됐다"(total loss)라고 밝혔다.

우주군도 이 위성이 폭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주군은 "지구궤도에서 인텔샷33e 위성이 분해된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약 20개의 관련 조각을 추적 중이며 분석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군은 또 이들 잔해와 관련해 "즉각적인 위험은 없는 것으로 관찰했다"며 "우주 영역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주 전문매체 스페이스뉴스는 위성 추적업체인 엑스애널리틱 설루션이 이 위성의 잔해인 57개의 파

편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체 파편 조각이 얼마나 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해당 위성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발사됐다.

이 위성은 발사 직후 추진력 문제로 예상보다 늦게 궤도에 진입했으며, 이듬해에는 또다시 추진력 문제가 발생해 예상 수명이 15년에서 3.5년 정도 단축된 상태였다고 정보기술(IT)매체 더버지는 전했다.

이 위성 폭발로 인해 해당 서비스 대상 지역에는 통신 서비스가 끊겼다. 인텔샷은 서비스 재개를 위해 다른 위성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잉은 올해 항공기 제조 결함으로 미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 왔으며, 우주 사업에서도 우주캡슐 '스타라이너'의 기체 결함에 따른 유인 시험비행 실패로 난항에 빠진 상태다.

“대선 캠페인용 상품, 중국산이 점령”

VOA “후보들은 대중 강경 입장”

대선 후보 지지에 사용되는 선거 캠페인용 상품에 중국산(메이드인 차이나)이 넘쳐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대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점점 더 많은 유권자가 모자, 티셔츠 등 캠페인용 상품을 착용함으로써 선호하는 후보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VOA는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나 모자가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테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국 업체들은 미국 대선 상품 시장에 정가의 10분의 1 수준의 저가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2016년부터 대선 캠페인용 티셔츠 등을 생산해 온 미국 의류회사 아메리칸 루츠의 벤 왁스먼 설립자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제조돼 온라인 쇼



미국 대선 캠페인용 모자. 미국의소리 방송 캡처

핑몰 아마존이나 옛시(Etsy) 등에서 유통되는 엄청난 양의 제품들이 미국 업체들의 경쟁력과 사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제작한 선거 캠페인용 티셔츠는 개당 15달러에 판매되는 반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서는 같은 중국산 제품을 3달러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이 확인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는 공식 매장 가격 40달러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4달러 미만으로 테무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테무에서 ‘카말라 해리

스 2024’ 모자는 3달러(약 4천원)도 안 되는 값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해리스 캠프의 공식 매장 웹사이트에서는 47달러를 줘야 살 수 있는 제품이다.

VOA는 선거용 상품의 미국산 및 중국산의 총판매 통계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아마존, e베이, 테무 등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의 양이 엄청나다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중국 업체들의 높은 가격 경쟁력과 후보 캠프 측에서 제품들에 지식재산권을 적용해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 미국이 개인이 하루에 수입하는 제품이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한도(de minimis exemption)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섬유업계 관계자들은 “두 대선 후보가 대중 무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은 중국산 제품을 사용해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플, 아이폰에 AI 탑재 본격화

‘챗GPT 버전’ 시험 출시



애플이 아이폰 등 자사의 기기에 인공지능(AI) 기능 탑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애플은 다

음 주아이폰의 새 운영체제 iOS 18.1 버전을 공식적으로 배포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iOS 18은 올해 아이폰에 탑재되는 새 운영체제로, iOS 18.1은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일부 기능이 들어있는 버전이다.

이 버전은 통화 녹음이 가능하고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다. AI는 이 텍스트를 요약해 중요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긴 이메일을 핵심 내용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메일을 포함해 중요 알림을 화면 상단에 배치해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 사진 속 방해 요소를 자동으로 식별해 제거할 수 있다.

AI 음성 비서 ‘시리’(Siri)는 더 똑똑해졌다. 사용자가 문장을 말하다가 실수하거나 중간에 내용을 바꿔도 ‘시리’는 문맥으로, 사용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애플은 이와 함께 이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iOS 18.2 버전의 베타(시험) 버전을 일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미리보기 형태로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iOS 18.2 버전에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주요 기능이 담겼다. 우선 오픈AI의 챗GPT가 탑재돼 복잡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시리’가 챗GPT를 이용해 답변을 제공한다.

‘시리’가 이용자의 특정 질문에 챗GPT의 답변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용자의 허락을 받아 챗GPT를 통해 답을 제시하는 형태다.

애플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애플은 구글의 제미니AI 등 다른 AI 모델도 애플 인텔리전스와 통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용자가 새로운 이모지를 만들고, 이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나 특정 요구사항에 맞춰 이미지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도 담겼다.

이용자가 특정 텍스트를 선택하면 텍스트 어조를 바꾸거나 문장을 더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됐다.

‘시리’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악의 재생 모드를 변경하는 등 이용자의 명령에 따라 특정 앱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은 추후 추가된다.

챗GPT가 탑재된 iOS 18.2 버전은 연내에 일반 이용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폴란스키 감독, ‘51년전 미성년자 성폭행’ 민사소송 합의

여러 건의 성범죄 의혹을 받아온 영화 감독 로만 폴란스키(91·사진)가 미국에서 51년 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AFP통신과 일간 LA타임스 등이 23일 전했다.

지난해 6월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여성은 폴란스키 감독이 1973년 당시 LA에 있던 그의 자택에서 당시 16세였던 자신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LA 카운티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폴란스키 측은 변호사를 통해 이런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폴란스키 감독

당초 이 소송은 내년 8월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합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LA 카운티 고등법원 기록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사 글로리아 올레드는 이달 초 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류를 냈다.

올레드 변호사는 “소송의 양측이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폴란스키의 변호사도 “이번 여름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폴란드에서 활동

한 폴란스키는 영화 ‘반항’(1965), ‘막대한 골목’(1966) 등으로 인정받은 뒤 미국으로 넘어와 ‘차이나타운’(1974) 등으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성범죄로 추락했다.

1977년 LA에서 모델인 13살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그는 미국 검찰에 유죄를 인정했으나 감형 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 중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미국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한 채 유럽에서 작품 활동을 해왔으며, 영화 ‘피아니스트’(2002)로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감독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시상식에도 불참했다.

“러시아 자부심에 상처” 독일서 우크라이나 재할군인 살해

독일에서 재할 중이던 우크라이나 군인을 살해한 러시아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용의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국가에 대한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독일 뮌헨 검찰은 러시아 국적 57세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27일 저녁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무르나우의 한 쇼핑

몰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각각 23세, 36세인 피해자들은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 무르나우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재할 중이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독일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피해자들과 인쟁을 벌이던 중 집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가 범행했다.

그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에 상처를



살해된 우크라이나 재할 군인 추모

입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고 독일 매체들은 전했다.

MD 지어인트 No. 1 에이전트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대선 사전투표 역대 최고...트럼프 호재?

WP "트럼프, 사전 투표 입장 변화...지지층 바로 응답"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사전 투표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공화당의 투표 행렬 속에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 아니냐는 때 이른 전망까지 나온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이번 대선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면서 "여기에는 사전투표를 장려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메시지에 호응한 공화당 지지층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우편투표 등을 이용한 사전 투표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대선 사기' 주장을 강하게 피력해왔다.

미국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1·6 의회폭동 역시 이같은 대선 사기 주장에 동조한 극우 지지층이 자행한 게 사실이다.

WP는 그러나 트럼



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우편 투표에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사전 투표는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역대급' 사전 투표율을 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애틀랜타 유세에서 "만약 투표 용지를 가지고 있다면, 즉각 투표하라"면서 "만약 없다면 내일 아니면 되도록 서둘러 투표장으로 가서 선거하라"고 독려한 바 있다. 그는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허리케인의 직격탄을 맞은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해선 우편 투표를 독려하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다고 WP는 덧붙였다. 이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열성 지지층의 반응으로 즉각 이어졌다.

플로리다대의 추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두 1천800만명의 미국인이 우편 혹은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사전 투

표를 마쳤다. 대표적 경합주인 조지아의 경우 160만명 이상이 현장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0년 대선 전체 투표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전투표 열세를 맞은 또 다른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140만명이 투표를 마쳤다. 네바다의 경우 공화당 지지층의 사전투표율이 민주당을 역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4년 전과 정확히 대비되는 풍경이다.

반면 직접 사전 투표를 운영하지 않는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10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이 65만명 이상으로 공화당(30만명)을 크게 웃돌았다.

50만명가량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애리조나에서는 민주당 참여율이 저조하고, 위스콘신은 전반적 사전 투표가 부진한 상태라고 WP는 전했다.

공화당 여론조사 전문가인 폴 벤츠는 관련해 "공화당이 선전하고 있거나 민주당이 극도로 부진한 상황"이라면서 "아직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독재 파시스트?"

재집권 가능성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전반기 비서실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파시스트로 규정했다.

존 켈리(사진) 전 비서실장은 22일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적합성과 인품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4성 장군 출신인 켈리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켈리 전 비서실장은 "독재적 지도자, 중앙집권 독재, 군사주의, 반대자에 대한 강압, 태생적인 사회계층을 특색으로 삼는 극우 독재, 초강경 국수주의 사상"이라며 파시즘의 정의를 크게 읽은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에 제대로 들어맞는다고 묘사했다.

그는 "저 전직 대통령(트럼프)은 확실히 극우의 영역에 있다. 확실히 권위주의자이며 독재자들을 선망한다고 자신이 말했다. 그가 파시스트의 일반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건 확실하다"라고 설명했다.

켈리 전 비서실장은 미국을 통치하는 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 작동한다고 보는 것들이 앞서 열거한 파시즘의 특색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자기 권력의 한계에 불만스러워했다고 켈리 전 비서실장은 회고했다.

켈리 전 비서실장은 "그는 확실히 독재자다운 정부 접근 방식을 선호했다"라며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내 반대에 대해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켈리 전 비서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첫해부터 왜 미국인들에 대해 미군을 동원하면 안 되는지, 그러한 대통령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을 계속 들었지만, 자신에게 그런 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회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선일 상황이 어떨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더 큰 문제는 외부에서 들어와 우리나라를 파괴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매우 나쁜 사람들, 일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일에 그들이 시위 등 행동에 나설 경우 "매우 쉽게 처리(진압)되겠지만 필요하다면 주방위군, 또는 정말로 필요하다면 군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켈리 전 비서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헌법과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미국 헌법에 대한 충성보다 자신에 대한 개인적 충성을 원했다면서 자신이 2017년 대통령보다는 헌법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직접 설명해줬지만, 그 사실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트럼프에 "민주주의에 진정한 위협...가둬야" 맹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주 콩코드를 찾아 처방약 비용 인하 관련 연설과 민주당 선거사무소 방문 연설을 통해 최근 독일 방문했을 때 일을 언급했다.

그는 "내가 참석한 모든 회의에서 그들(다른 나라 지도자)은 나를 조용히 옆으로 데려가서 그(트럼프)는 이길 수 없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다. 나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기

자단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물러나면 누가 세계를 이끌 것인가? (미국 대신 세계를 이끌) 나라 이름을 대봐라"라고 반문했다.

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나 한국 등 동맹을 향해 방위비 인상을 거세게 압박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및 신(新) 고립주의 외교 전략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며, 이는 과장이 아니다"라며 "이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

공화당원이 말하는 것은 진심이다"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당 선거 사무소에서는 "우리는 그(트럼프)를 가둬야 한다"(We've got to lock him up)고 말하기도 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가둬야 한다'는 표현은 해리스 부통령이 유세할 때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외치는 구호라는 게 AP의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트럼프는 사실상 헌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라.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Hello Medicare®
A non-government entity



귀하의 삶에 꼭 맞는 메디케어 플랜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메디케어의 선택사항들을 이해하고 필요를 충족시키는 플랜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Plans)
- 메디케어 보조 플랜(Medicare Supplement Plans)
-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Medicare Prescription Drug Plans)

HelloMedicare는 애트나(Aetna), 휴매나(Humana), 웰케어(WellCare) 및 유나이티드 헬스케어(UnitedHealthcare)와 같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보험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 유형 및 플랜 선택을 제공합니다.

hellomedicare.com/call-to-enroll/korean

맞춤형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어를 구사하는 자격증 소지 보험 에이전트에게 전화하십시오.

1-800-601-8681

청각 장애인 전용전화: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모든 사람의 건강 혜택 요구 사항은 고유합니다. 귀하의 필요에 맞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웹 및 전화 기반 보험 포털인 HelloMedicare®는 모든 50개 주 및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비거주자 보험 대행사 또는 보험 대행사로서의 사업 허가를 받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면허 보험 대행사(license #0E97515)인 Golden Outlook이 제공합니다. Golden Outlook은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메디케어 보조 보험 및 처방약 플랜 선택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모든 에이전트가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및 제품은 주마다 다릅니다. 면허가 있는 보험 대리인은 소비자의 건강 보험 가입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의무 없음. 당사의 견적 도구는 정보 제공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모든 견적은 추정치이며 소비자가 가입할 때까지는 최종 견적이 아닙니다. 가입 의무 없음. ©2024 HelloMedicare®

“자민당, 단독과반 붕괴 할 수도”... 이시바 ‘식물 내각’ 위기

일본 총선거 D-3, 예상 판세는
비자금 스캔들 이후 국민 신뢰 잃어
접전지 내 표심 결집이 막판 변수
‘반이시바’ 다카이치 득세할 수도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지난 1일 취임한 지 27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시바 총리에겐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상 판세와 전망을 정리해봤다.

-현재 판세는.
“이시바 총리와 자민당엔 위기다. 이시바 총리가 직접 ‘여당 과반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죽기 살기로 전국을 누비겠다’는 통지문을 돌릴 정도다. 이번 선거에선 지역구 289명과 11개 권역으로 나뉜 비례대표 176명 등 총 465명을 뽑는데, 일본 매체들은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자민당이 목표하는 ‘단독 과반’(233석 이상)은 어렵다고 본다. 나아가 연립 여당(자민당+공명당)의 과반 의석 확보마저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접전지에서 자민당 표심 결집이 얼마나 이뤄지느냐가 막판 변수다.”

-자민당이 고전하는 이유는
“지난해 정치자금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 결정적이다. 교도통신의 유권자 설문에서 여당계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24.6%)보다 야당계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33.2%)이 앞섰다. 바람직한 선거 결과를 묻는 질문엔 ‘여야 세력이 비슷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49.7%)에 달할 정도다. 이시바 총리의 낮은 지지율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통상 정권 출범 직후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데 이시바 정권 지지율은

44%(NHK 조사)로, 직전 기사다 정권 출범(49%) 때보다 낮다”

-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일본유신회 등 다른 당과 손잡을 수 있다. 실제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20일 NHK에 “연립정권 확대에 대한 협의를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당과 정책 방향이 유사한 국민민주당 다카키 유리치로 대표도 자민당과 협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제1야당은 입헌민주당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가 대표를 맡아 12년만의 정권 탈환을 내세우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공산당 등 8개가 넘는 야당 간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여당을 심판할 수 있는 ‘일대일 대결’ 선거구가 많지 않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총 289개 지역구 가운데 일대일 대결은 47개에 불과하다.”

-선거 후 이시바 정권의 운명은.

“자민당 내에서 ‘여당 과반’마저 깨지는 참패 때는 ‘이시바 끌어내리기’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시바가 선거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비판론이 퍼질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총재선거에서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요미우리신문은 “선거 결과에 따라 ‘반(反)이시바’의 기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국정 운영도 순조롭지 못할 수 있다. 여당 의석수가 ‘절대 안정 다수(261석)’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시바가 공약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설립, 마일 지위협정 개정, 핵 공유 등은 물론 취임 첫 국회연설에서 언급한 자위대 헌법 명기도 추진하기 쉽지 않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이스라엘군 미사일에 무너진 건물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지역의 한 아파트로 떨어지고 있다(왼쪽 사진). 미사일이 떨어진 건물 주변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가운데), 시간이 지나 건물이 주저앉은 모습(오른쪽). [로이터=연합뉴스]



미 공화당원 참여도 급증, 사전투표 벌써 1800만명

트럼프, 4년전과 달리 적극 독려
전문가 “선거 유·불리 속단 이르다”

미국 대선을 2주일 앞둔 22일(현지시간) 기준 18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우편 또는 현장 투표를 통한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전과는 달리 공화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선 승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를 인용해 “전국적으로 180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우편이나 투표소 현장 방문을 통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며 “이는 4년 전 전

체 투표자의 10%가 넘는 수치”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사전투표율은 2012년 33%, 2016년 40%였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치러진 2020년 대선 때 69%로 급증하는 등 제도가 정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사전 우편투표를 ‘선거 조작’이라며 부정적으로 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엔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5일 애틀랜타 유세에서 “내일 바로 현장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원의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아진 것을 놓고 유·불리를 속단하긴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 지지자의 전반적인 투표 참여 증가를 의미하는지, 팬데믹 우려가 사라진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시 본 투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캠프는 고무적인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점한 압도적 우위를 이번엔 어느 정도 상쇄했다고 보고 트럼프 캠프가 흡족해한다”고 전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호품 보려다...가자 난민촌 세살배기 참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전쟁으로 초토화된 가운데 세살배기 어린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호품을 올려다보려다 그 자리에서 파편에 맞아 즉사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22일 CNN 방송에 따르면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난민촌에서 가족과 머물던 3세 소년 사미 아야드는 지난 19일 떨어진 구호품 운반용 나무 판자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구호품이 떨어질 당시 가족들은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고 아야드의

할아버지는 말했다. 아야드의 할아버지는 손주와 함께 앉아있다가 자신이 잠시 곁을 비운 순간에 구호품 덩어리가 손주에게 떨어졌다면서 “그와 나 사이에는 찰나의 순간만이 있었다. 나는 그를 들고 달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병원도 없다. 나는 미친 듯이 달렸지만, 아이는 즉시 죽었다. 나는 그를 구하지 못했다. 그의 코와 입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야드의 아버지는 아야드가 하늘에서 구호품 낙하산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저서 내게 낙하산을 보라고 말하고 있었다”면서 “이후 그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고 말했다. 이날 떨어진 구호품으로 아야드의 이모와 사촌들도 얼굴, 발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CNN은 아야드가 숨진 현장에는 핏자국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1년 넘는 전쟁에도 살아남은 3살 아

이를 한순간에 잃은 가족과 친척들은 아야드가 숨진 자리에 모여 눈물을 흘리며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국제 사회가 가자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짜낸 교육지체인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이 아야드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인간적 존엄을 박탈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아야드의 할아버지는 “우리는 원조를 원하지 않는다. 존엄을 원한다”면서 “이스라엘 뿐 아니라 아랍 국가들로부터 받고 있는 모욕과 수치는 이걸로 충분하다. 이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자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야드의 삼촌은 “우리의 삶은 수치, 죽음, 공포다. 다음 날 깨어날 수 있는지 모른 채로 매일 잠에 든다”면서 “우리는 인간이지, 하늘에서 음식을 떨어트려 줘야 할 동물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당국에 따르면 아야드가 숨진 날 칸유니스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의 항공기가 식량 패키지 81개를 공중에서 투하했다. CNN은 이에 대해 UAE 당국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이날 아야드가 숨진 난민촌에는 UAE 국기가 표시된 구호품 나무상자들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OCT. 24TH - OCT. 31ST, 2024



호정가
 HO JEONG GA



CELEBRATING 40 YEARS OF EXCELLENCE
40 years Since 1982
 H MART
 창립 40주년
 실속기획세트

Traditional Donuts

옛날/흑임자 도나스

REGULAR/BLACK SESAME
 2.11 LB

\$8.99

CUCKOO

쿠쿠전자

Electric Twin Pressure Rice Cooker

쿠쿠 압력 밥솥

CRP-TT0309FW
 3 CUPS/WHITE

~~REG. \$289.99~~

H 마트 독점세일
 AVAILABLE ONLY AT H MART

\$199.99
 EA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통일은 헌법적 가치지만 MZ 세대는 이미 '반통일'이 주류

1980년대 운동권 민족해방(NL)계열의 상징적 인물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통일, 하지 말자”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전대협 의장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때까지 입만 열면 통일을 외치던 그가 갑자기 노선을 180도 바꾼 것은 올 초 북한 김정일의 ‘적대적 2국가’ 선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은 “중북(從北)인 줄 알았더니 중북(忠北)이었나”(오세훈 서울시장)며 맹렬히 비판했으나, 진보 진영 일각에선 본격적으로 ‘반통일’을 선언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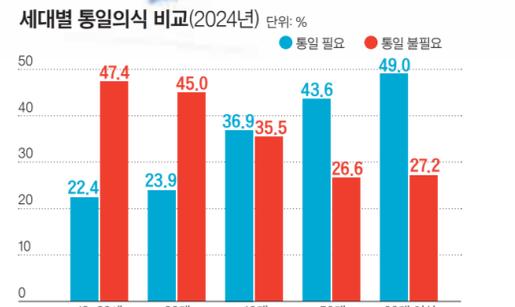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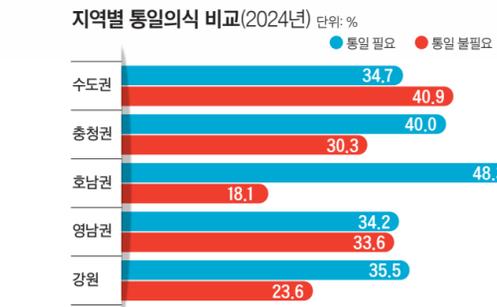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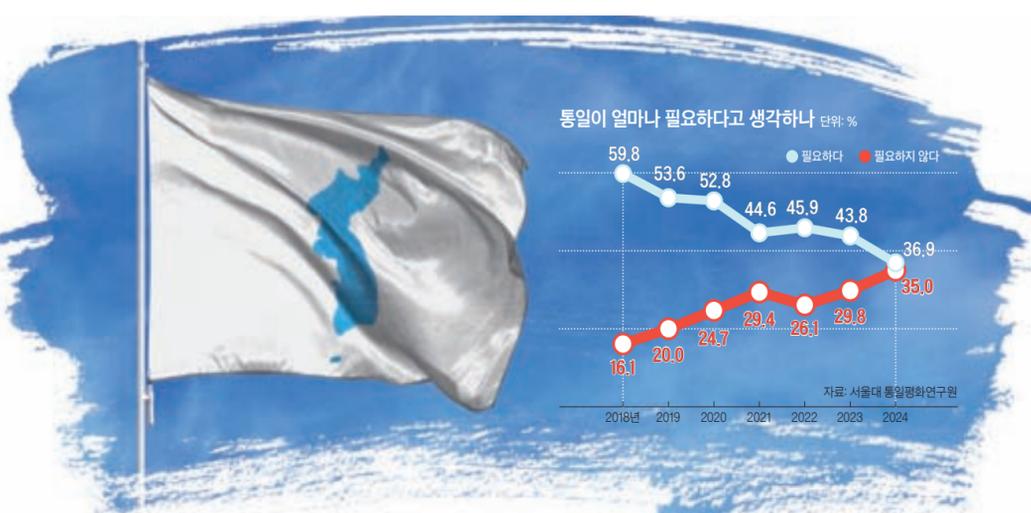
그런데 진보 진영의 유턴과는 별개로 한국 사회에서 반통일 여론의 부상 이 심상찮은 게 사실이다. 특히 MZ 세대에선 통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임종석류의 반통일론이 한국의 통일 추구가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통일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MZ 세대의 반통일론은 통일이 한국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 없다는 실리주의다. 출발점은 정반대지만 결론이 똑같은 기묘한 양상불이다.

통일 찬성론 6년 연속 하락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통일의식 조사를 실시하는데, 일반 전화 조사가 아니라 방문 면접을 통한 심층 조사여서 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2024년 조사(7월 1~23일 전국 1200명 면접)에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역대 최저치인 36.9%, ‘불필요하다’는 역대 최고치인 35.0%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통일은 자유·평등·민주주의와 동급인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지만, 실제 여론은 찬반 여론이 팽팽한 셈이다. 통일 찬성 의견은 2018년 59.8%에서 6년 연속 하락 추세이며, 통일 반대 의견은 2018년 16.1%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세대별로는 19~29세에서 필요 22.4%·불필요 47.4%, 30대에서 필요 23.9%·불필요 45.0%로 필요 없다는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두 배나 됐다. MZ 세대에선 이제 ‘반통일’이 주류라고 봐도 무방하다. 반면 60대 이상에선 필요 49.0%·불필요 27.2%, 50대에선 필요 43.6%·불필요 26.6%로 MZ 세대와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냈다. 이 흐름으로 계속되면 통일은 결국 ‘꼰대의 담론’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역별 차이도 상당했다. 표본 수가 적은 제주를 제외하면 통일에 가장 찬



성하는 지역은 호남(필요 48.4%, 불필요 18.1%)이었고, 통일에 가장 반대하는 지역은 수도권(필요 34.7%, 불필요 40.9%)으로 나타났다. 영남(필요 34.2%, 불필요 33.6%)은 찬반이 엇비슷했다.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장은 “호남에서 통일 필요 의견이 압도적인 건 아무래도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보와 보수의 통일 의식 역전 현상

2018년 통일 필요성 설문에서 진보층은 필요 66.6%·불필요 11.6%로 압도적으로 통일 지향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진보층에선 2020년 이후부터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매년 빠르게 증가해 올해는 필요 39.2%·불필요 37.3%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2019년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이 대실패로 끝난 뒤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것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층에서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증가하긴 했지만, 진보층보다 변화 정도가 덜하다. 보수층은 2018년 필요 53.0%·불필요 24.7%였고 올해는 필요 42.6%·불필요 28.0%였다. 이념 성향에선 진보와 보수의 통일 의식이 역전된 것이다. 성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은

전체 세대에서도 통일 찬반 팽팽 '통일 불필요' 35% 역대 최고치

통일 반대 이유 1위 경제적 부담
통일은 이익 43%, 불이익 57%

통일 기대심리 갈수록 희미해져
“통일의 혜택 알려주는 교육 필요”

필요 41.7%·불필요 31.4%였지만, 여성은 필요 31.9%·불필요 38.6%였다. 이를 2023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당시엔 남성은 필요 46.6%·불필요 28.5%였고, 여성은 필요 41.0%·불필요 31.2%였다. 1년 사이에 여성 쪽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증한 것이다. 김범수 원장은 “젊은 층에선 남성보다 여성이 진보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내용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통일에따르는 경제적 부담(33.9%)을 꼽았고 이어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27.9%),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19.2%), 남북 간 사회

문화적 차이(14.6%),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4.3%) 순서였다. 특히 이에게 이 순서는 전 연령대에 걸쳐 동일했다.

통일 불가능 39%, '30년 이상' 31.4%

통일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도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2018년 조사에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20년 이내(28.0%)와 10년 이내(25.7%)가 1·2위였고, 불가능하다(14.0%)와 30년 이상(12.5%)는 소수였다. 그러나 올해 조사에선 불가능하다(39.0%)와 30년 이상(31.4%)이 압도적으로 1·2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30년 이내(13.0%), 20년 이내(10.5%)가 뒤를 이었다. 성·연령·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불가능하다’가 1위였다.

‘통일이 한국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43.0%가 ‘이익이 된다’, 57.0%가 ‘이익이 안 된다’고 답했다. 특히 20~30대에서 ‘이익이 안 된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 19~29세에서 ‘이익이 된다’ 36.2%, ‘이익이 안 된다’ 63.8%, 30대에서 ‘이익이 된다’ 35.7%, ‘이익이 안 된다’ 64.3%였다. 이는 윗세대에 비해 ‘이익이 된다’는 대략 10%포인트 정도 낮고, ‘이익이 안 된다’는 10%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다. 1990년대 이후 출생자(Z 세대)들의

통일 의식을 분석한 통일평화연구원의 김택빈 선임연구원은 “기성세대의 통일 회의론은 기존의 사회적 균열요인과 다양한 인구학적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Z 세대는 뚜렷한 균열요인이 식별되지 않았다”며 “이는 Z 세대의 통일 회의론이 Z 세대 내의 공통된 특징이란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Z 세대에서도 북한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을수록 통일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며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교육보다 북한 체제와 주민들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것이 통일 인식의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층이 통일 긍정 담론 만들어야”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018년엔 54.7%가 ‘가능하다’고, 45.3%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올해는 26.5%만 ‘가능하다’고, 73.5%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월드컵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결한다면 어느 팀을 응원하겠느냐’는 질문에 2018년엔 57.8%가 북한이라고 답했고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자는 8.6%에 불과했다. ‘양 팀 모두 응원’은 17.9%, ‘어느 팀도 응원 않겠다’는 15.7%였다. 그런데 올해 조사에선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자가 27.9%로 줄었고,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23.0%로 증가했다. ‘양 팀 모두 응원’은 19.7%, ‘어느 팀도 응원 않겠다’는 29.3%였다. 40대 이상에선 북한을 미국 응원보다 많았으나, 30대 이하에선 오히려 미국 응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은 지각 변동이 진행 중이다. 특히 MZ 세대에선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증한 것은 통일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김범수 원장은 “연금 문제처럼 통일 비용도 젊은 층이 가장 큰 부담을 지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 같다”며 “젊은 층의 통일 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해선 통일을 단순히 민족적인 사명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통일이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혜택을 가져다주는 지 구체적인 수치로 확신을 심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출출 경남대 교수는 “젊은 층은 사회 분위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통일에 대해 자주 긍정적인 담론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학 논설위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한국 TV 시청 가능
- 최고의 시설 (1인/1실)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 INOVA 병원 5분 거리

문의 703-980-9890



우메켄 연말

더블 혜택 대잔치

▶ 12월 31일까지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올 연말 사랑하는 분들께 **우메켄**을 선물하세요

10% 할인 + 무료 선물

\$98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FREE GIFT

씨(C)밸런스
\$39

OR



FREE GIFT

아오지루
녹즙
\$39

\$165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FREE GIFT

발효
미네랄 L칼슘
\$69

OR



FREE GIFT

건강다시
타쿠미 2박스
\$56

할인혜택과 함께 **무료 선물**도 받으세요

SALE + 선물 증정

베타글루칸 세트



~~\$539~~ ▶ **\$485**

리포포 세트



~~\$439~~ ▶ **\$395**

효소환 세트



~~\$439~~ ▶ **\$395**

L&B 화장품 세트



에센스(\$115)

~~\$439~~ ▶ **\$395**

L칼슘(\$69)
무료증정



FREE GIFT

OR

타쿠미 2박스(\$56)
무료증정



FREE GIFT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우메켄
구입처

■ ANNANDALE • 웰빙모아 (703)256-5500 • 건강마을 (703)354-151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CENTREVILLE • 웰빙모아 (703)830-775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ELLICOTT CITY • 롯데플라자 (410)750-9656 • 모드니에 (410)615-6167 • 힐링 마을(443)878-9010 ■ CATONSVILLE • BESETO (410)303-5530 ■ GAITHERSBURG • GREEN COSMETIC (301)926-6307

한, 특별감찰관 추진...추 “원내 사안” 제동 친한·친윤 전면전

(한동훈)

(추경호)

용산 “여야 합의를” 추경호 두둔

‘윤·한 회동’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충돌하는 가운데 23일엔 특별감찰관을 두고 여권 내 전선이 형성됐다.

한 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결책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동하지 않는 특별감찰관(특감) 추천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즉각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었고, 대통령실도 “여야가 합의해서 오면 임명할 것”이라며 가세했다. 여권 내 친윤-친한 권력투쟁이 본격화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확대 당직자회의를 취입 후 처음으로 소집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위기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라고 물으며 “지금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의 시점은 11월 중순으로 못박았다.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 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며 “그때 우리는 김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를 해소할 상태여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 첫 번째 조치로는 특감 임명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요구한 뒤 “그러나 특감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김종혁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정동혁 최고위원. [연합뉴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특감은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동된 문제로 여야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감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도입됐으나, 이석수 초대 특감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직후 사직하

면서 공석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먼저”라며 특감 추천을 미뤘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선 민주당이 특감 임명을 요구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특별감찰관 추천에 참여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2022년 8월 국민의힘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마쳤으나, 민주당은 미루고 있는 점을 특감과 연계시킨 것이다.

한 대표의 조건 없는 특감 추진 발언 직후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힌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감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원내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엔 관련 상임위원들과 중진 등의 의견을 우선 듣고 결정할 부분”이라며 “원내 최고 의사결정은 의원총회이며 그의 의장은 원내대표”라고 했다. 한 대표가 ‘원의 대표’라는 지점을 공략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또 한 대표가 제시한 특감 추천 시한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선고와 특감 의사결정 부분이 맞물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필요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윤·한 회동’ 직후 대통령실 만찬에 참석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퇴근하는 길에 연락이 있어 잠깐 들렀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대통령실도 냉담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감 임명에 대해 “대통령실 입장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면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감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나는 질문에는 “당에서 먼저 연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당 내부 동의부터 받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친윤계는 한 대표를 겨냥해 공세 수

위를 높였다. 김태흠 총남시사는 이날 친윤계 외곽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나를 마친 뒤 한 대표를 향해 “아마추어” “속 좁은 정치인” 등 원색적인 표현을 쏟아냈다. 그는 자신이 한 대표를 비판한 SNS 게시물에 한 대표가 직접 전화로 항의했다고 전하면서 “대표도 잘못했으면 당원들에게 비판받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 하나를 감당 못 하면서 어떻게 대표를 하나. 속이 좁아터졌다”고 했다. 친윤계 강명구 의원도 라디오에서 한 대표의 ‘한남동 라인’ 쇄신 요구에 “여사님과 좀 친하고 인부 전화 좀 한다고 해서 비선인가. 우리는 탄핵을 경험한 당인데 야당 의도에 휘말려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친윤계의 반격에 친한계도 들끓었다. 친한계 의원들의 단체 텔레그램방에는 “추 원내대표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 “특감 임명 필요성을 두고 당내 토론을 벌이자”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방에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즉시 원천 반대하느냐. 원내대표가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적었다.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공약한 것에 반대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박정훈 의원), “의총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지아 의원) 등의 의원총회 소집 요구도 이어졌다. 여기에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윤지원 기자**

“난 100명 잘라냈다” 대통령, 한동훈 쇄신요구에 불쾌감

“정부 출범 초 문제 있던 사람 정리” 윤·한 회동 상황 참모들에 전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81분 회동’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한 대표가 주재한 만찬 등에 참여한 친한계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될 수도 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푸대접을 받았다”며 면담의 의전과 사진까지 문제 삼자 대통령실은 23일 “엄중한 정치 상황에 당정이 하나가 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역시 최근 참모들에게 한 대표와의 회동 상황을 전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대표적 사례가 회동 당일인 지난 21일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

여사 라인, 즉 ‘한남동 라인 8인방’의 인적 쇄신 문제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8명의 비서관·행정관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호가호위하는 이들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에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리한다. 한 대표도 잘 알지 않느냐”며 “정부 출범 초기 업무상 문제가 있던 100여 명의 인사를 잘라냈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시절인 2022년 하반기에 이른바 ‘윤핵관 라인’을 포함한 행정관·비서관 수십 명을 업무 평가와 감찰을 통해 물갈이했다. 최소 50명 이상의 실무진이 교체됐다. 당시 여의도에선 “윤 대통령이 정권 초기 공신을 다 쳐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때의 일화를 전하며 한 대표에게 “대통령실 인사는 한 대표가 자르라고 자를 수 있는 건 아니다. 구체적 비위 근거를 가져다주면 오히려 고맙다. 내가 자르겠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 친한계 인사는 “윤 대통령이 수십여 명을 교체하며 여사 라인을 잘라내지 못한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답변에 한 대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다른 요구사항을 전한 점도 아쉬워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여러 건의를 한 것도 맞고, 윤 대통령도 하나하나 답변을 한 것도 사실”이라며 “문제는 거기서 더 대화가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박하지 않은 채 주변 사람에게 불만을 표

출했다는 지적이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친한계 인사들에게 “용산은 지금 말의 각색을 할 때가 아니다”고 말한 점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실제 어떤 부분이 왜곡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면 살펴보고겠다”고 말했다. 의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홀대나 무시는 왜곡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의 지복을 받은 인사를 포함해 일부 대통령실 행정관들 사이에선 “한 대표가 열심히 일한 행정관들을 아무 근거도 없이 공격하고 있다” “위에서 지켜주지 않으니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의 발언에 들끓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실제 단체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억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후엔 한 대표를 겨냥해 연일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TK(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및 TK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의 회동 전에 잡힌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장과 TK 현안에 대해 75분간 논의했다. 나는 누구처럼 윤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홍 시장을 비롯해 지난 18일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역지자체장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21일엔 한 대표와의 차담회 이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찬 자리를 가졌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충돌하는 가운데 자기 사람을 더 챙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태인·김기정 기자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앞빌딩 3층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10월 스페셜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정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온열 지압침대
 백들이 온열지압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체온 1C 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무이자 할부 최고 36개월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널 제품

GH 온열 지압 침대의 특징

102개의 지압봉 + 2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지압봉 기계 지압봉 모션

▶ 온열 지압 카우치 ▶ 온열 지압 상감 평상

본토 휴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황토로 만들어진 '누드 휴팜'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ECO

\$2,900 \$2,300 \$3,000 \$2,500 본토휴침대 100% 생황토

sale sale

장운정의 휴표 휴 매트

휴표 휴침대 워싱턴 대리점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빻어 만든 휴표 휴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휴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솔잎뜸질 찜질효과

원적외선 명품매트

휴표 휴 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원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던 지정 대리점

월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입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3 간단 편리한 작동
 2 특정한 뉴질랜드 원목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7도 거기를 채우고 찜질용 특수함~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몸속까지 시원한 수직 지압 마사지!

Made in KOREA

1/4마력 강력모터의 파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의 특징

하루에 5분만 사용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십견, 관절통증 완화 효과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가 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눈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가기

피로한 눈, 뻑뻑한 눈곱감, 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 충혈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129

★히트상품★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화봉 매트

2020년 최우수 제품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크세사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트럼프 당선 땀 약달러… 제2 플라자 합의 추진할 수도”

(弱)



1-2 조태열 외교부 장관, 로버트 케이건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모리스 읍스펠드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 3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4-5 1세선의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중앙포럼 기조연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미 대선과 한·미 동맹’을 주제로 열린 ‘2024 중앙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 대선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안보·경제·산업 정책 전 분야에서 미 대선과 그 이후에 대비해 왔다”며 “미 연방 정부와 의회는 물론 주정부와 의회에 이르기까지 접촉선을 확대하면서 학계 및 재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미·중 전략 경쟁과 관련해선 “미·중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외줄타기 외교를 하기에는 우리의 국력과 위상이 너무 커졌고, 우리에게 대한 기대와 요구도 너무 많아졌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갈게 보면 미·중 전략경쟁 속 한·미 동맹의 관리는 우리 사회가 장기 게임을 위해 단기 비용을 얼마나 감내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로버트 케이건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조연설에서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도 한국이 당황할 필요는

없다”며 “미국은 특히 한국 같은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해 경제·정치·군사적으로 역량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부상 이후 미국 국민은 국제 문제에 대한 관여와 개입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처음은 아니다”며 “미국인들은 더디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등장하면 결국엔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미·중 경쟁 속 한·미 동맹 관리 장기전 위해 단기비용 감내해야”

케이건 선임연구원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한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코너스톤(cornerstone, 초석)이며, 많은 미국인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하면 무역 분야에선 한국에는 안타까운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트럼프도 중국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에 한·미 동맹 등 동맹의 중요성을 잘

케이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트럼프 당선돼도 당황하지 말라 미국 내선 한·미 동맹 초당적 지지”

알고 있다. 미국 내에는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건 선임연구원은 “미국인들은 문제가 생겼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여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다시 관여한다. 미국 여론도 어느 정도 미국의 고립을 바라고 있지만, 이런 역사적인 패턴이 바뀔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읍스펠드 UC버클리 교수
“트럼프, 각국에 건축 설득 가능성 환율변화 취약 한국, 어려워질 수도”

스트를 지낸 모리스 읍스펠드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환율 변화에 취약한 한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트럼프는) 대미 무역협상을 내는 한국에도 관세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위해 과거 ‘플라자 합의’ 식으로 다른 나라에 공동 긴축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동맹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통화까지 절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읍스펠드 교수는 한국의 도전 과제로 ▶중국의 경기 침체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 ▶저출산 ▶가계부채와 높은 집값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이슈(트럼프 당선 시) 등을 꼽았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권 이민을 늘리고, 유급휴가(출산휴가 등)를 확대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국가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물가가 떨어지고 성장이 불안할수록 기준금리를 내리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집값이나 가계부채 상상을 부추기는 연료(fuel)를 제공해선 안 된다. 엄격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지혜·김기환·박현주 기자**

조태열 “북한 파병부대, 행위따라 국제형법 책임 따를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 ‘2024 중앙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짚었다. 조 장관은 “러시아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해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지속하는 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평소처럼 유지할 수는 없다”며 “북한도 파병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

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후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을 놓고 “북한의 체제·안보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

으로 걱정할 것은 존재하지 않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 확산되는 자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열망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이 “한·미 관계 초당적 협력을” 이 “진영외교론 평화 못지켜”



한동훈 대표(왼쪽)와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중앙포럼에서 인사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미 대선과 한·미 동맹’을 주제로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중앙포럼’에 참석한 여야 대표는 축사에서 ‘진영 초월’ ‘국익 우선’이라는 한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미 관계는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며 “기름기 다 빼고 국익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평화를 복원하고 동북아시아의 경제·안보 질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것”이라며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시대착오적인 진영외교로는 평화도, 경제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선 후 미국의 외교적 변화를, 이 대표는 미·중 경쟁의 격화를 언급한 뒤에 이 같은 말을 꺼냈다. 한 대표는 “누가 어떻게 되든지 생길 수 있는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정치

의 몫”이라며 “누가 되든 간에 미국 외교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미 대선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 상황을 “각자도생의 국제 질서와 미·중 경쟁의 파고”의 이종이라고 진단했다.

한 대표는 “미국 대선과 한·미 동맹 문제는 진영을 초월한 문제”라며 “정치 투쟁은 국경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오직 국익만 바라보고 대응적으로 정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대표가 “그저께(21일) 대통령과

의 만남에서도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완전히 같이했다”면서 “놀라셨겠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합의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하자 객석에선 웃음이 터졌다.

이 대표는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지난 30년간 세계를 지배해 왔던 자유무역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심화되는 중동 위기까지, 글로벌 안보 환경의 불안으로 우리 경제·안보 모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

보험 에이전트 모집입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구강교육치과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Periodontal Surgery Orthodontics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Veneer Lumineers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더더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해리스·트럼프 누가 되든, 대중 견제는 계속될 것”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 5-12 세션의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김양광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룡·강정현·김중호 기자

1세션: 한국 외교·안보 시나리오

“바이든, 중국·북한 따로 접근해 실제 미국 차기 행정부는 반복 말아야”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23일 ‘미 차기 행정부에 따른 한국의 외교·안보 시나리오’를 주제로 열린 2024 중앙포럼 1세션에서 “앞으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결합돼야 한다”며 “중국 문제, 북한 문제를 따로 떼어내 보겠다는 전략으로는 차

기 미 정부도 북한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문제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중국 문제에 집중한 바이든 정부의 전략을 ‘실패’로 평가했다. 그는 “만약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관린된 경쟁’이라면 중국에 운신의 폭을 주고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미국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열(연세대 교수)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미국 패권의 쇠퇴는 이

미 시작된 큰 추세”라며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면서 더는 혼자서 ‘지구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는 미국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상황에서 방기(abandonment)는 어쩔 수 없는 트렌드”라며 역사적으로 영리한 동맹은 없기에 미국 패권의 쇠퇴는 국제질서 흐름에 맞게 동맹의 성격 변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

국연구센터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든, 해리스 행정부든 미국의 대중 정책에는 견제와 압박이라는 전략적 일관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어느 쪽도 (중국과) 대규모 군사적 갈등이나 경제적·사회적 관계 단절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을 해리스 행정부보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중국 고립과 봉쇄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센터장은 “그렇다고 트럼프 재등장이 반드시 중

국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는 “최근의 북·러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결고리로 한 일시적 성격이 짙다”며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월 관계도 막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75년간 북·러 관계를 보면 경제적·전략적으로 (공유) 기반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영교·이근평·이유정·박현주 기자

“미 보호무역주의 이어질 것... 한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해야”

2세션: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배터리·자동차도 아메리카 퍼스트 중국 추격 대응해 기술력 높여야”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 연구부 교수는 23일 ‘미 대선과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을 주제로 열린 2024 중앙포럼 2세션에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당선되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

령이 당선되든 정도만 다를 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기존의 자유무역주의와 세계화는 미국의 이익을 침해해 왔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미국 대선 이후의 국제통상 질서를 ‘각자도생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트럼프 후보의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은 50%인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전망과 관련해 김 교수는 “미국의 강한 경제 성장세와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후퇴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와 자동

차 분야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김양광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는 더는 진영의 논리가 아닌 정책의 나침반”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대(對)중국 통제에 한국 기업 동참 강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국의 추격에 대응해 기술 경쟁력을 압

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반도체는 물론 첨단 자동차까지도 미국에서 생산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라 한국이 경쟁 우위를 확보한 전기차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기환·김민중·고석현 기자

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언제 전쟁이 발생할지 모를 작금의 한반도 위기 국면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악화일로인 남북관계에 대해 그는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자주적 인식을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의 문을 다시 열어나가야 한다”며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유성운·이창훈 기자

▶ 1편 ‘한·미 동맹’에서 이어집니다
이어 “지금까지 양국이 함께 쌓아온 역사적 유산 위에서 한·미 동맹이 더욱 견고한 자유 수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가 이날 ‘미 대선과 한·미 동맹’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최한 ‘2024 중앙포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원식 실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계 핵심 인사가 참여했다.

우원식 의장은 축사에서 “한·미 동맹 71년, 긴밀하고 오래된 양국 관계만

큼이나 미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클 것”이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 우선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그 어느 때보다도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누가 당선되더라도 우리는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면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우리의 국익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는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미·중 전략 경쟁에서 파생된 ‘한·미·일 대 북·중·

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제약하고 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도록 국익의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정도 중앙홍dings 부회장은 위빈 축사에 앞서 진행한 개회선언에서 “포럼의 주제를 ‘미 대선과 한·미 동맹’으로 정한 이유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동맹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이라며 “어느 행정부가 들어서든 양국에 있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같이 갑시다’라는 동맹의 구호

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풍성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는 개회사에서 “새로운 미 행정부의 선출을 앞두고 많은 한국인은 지난 71년간 끊임없이 진화해 온 한·미 동맹의 진화가 멈추거나 퇴보할까 걱정하고 있다”며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는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합 위기 속에서 한·미 동맹은 이제 새로운 서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SELFOTO STUDIOS 나만의 사진관

가을 특선 10월 한달 동안 사진 2장 추가 무료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나만의 맞춤형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 샷찍어보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4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중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티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여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우리말 바꾸기

~하기 위해? ~하려고?

한 후배는 번역투에 민감하다. 그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았다”를 “해외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았다”로 수정한다. ‘~기 위해’가 영어(for, in behalf of, in the interest of)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투여서 자연스럽게스럽지 않다고 말한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에 조금은 수궁이 가기도 한다. “해외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았다”가 일상에서 쓰는 방식이니까.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유턴했다”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다” “너를 만나려고 두 시간이나 기다렸다”에서처럼 ‘~려고’는 낮이 익고 편하다. 여기서 ‘사려고’를 ‘사기 위해’, ‘먹으려고’를 ‘먹기 위해’, ‘만나려고’를 ‘만나기 위해’라고 하면 일상에서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일로 무게가 더해진다. 공적인 곳에서 내놓는 문장이었다면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유턴했다”고 했을 확률이 더 높다. ‘사기 위해’라고 표현하면 행동의 목적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려고’라는 일상의 평범한 말투와 구분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는 듯하다.

물론 ‘~기 위해’가 더 나은 때도 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실천 방안을 매주 점검한다”에서는 ‘마련하기 위해’가 불편하지 않다. ‘마련하려고’가 오히려 낯설어 보인다. 그렇지만 “돌고래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에서는 ‘살리려고’가 자연스럽고 간결하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운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체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포용적 미국’ 아직 유효한가



진성철
경제부장

반면, 착취적 제도는 소수 집단에게만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제도를 말한다.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고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아서 국가의 지시만 따르면 되는 구조다. 착취적 제도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북한이다. 로빈슨 교수는 소수 엘리트에게 권력이 편중된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 때문에 북한은 경제적 변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포용적 제도가 점차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의 양극화가 포용적 제도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흔들고 있어서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포용적 제도가 가장 잘 구축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 분열이 심화하면서 포용적 정치 제도가 위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의 등장 이후 정치와 사회의 양극화는 더 악화했다. 그는 4년간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고 올해 대선에도 공화당 후보로 나섰다. 이번 대선 유세 과정에서 그는 종종

공격적이고 사실과 거리가 있는 언급으로 정치와 사회적 논란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정치 리더의 태도는 ‘우리 편 아니면 무조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여기에서 팬데믹 이후 심화된 부의 불평등은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자산 상위 1%에 속하는 초부유층의 부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자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 포용적 제도를 구축해 성공적으로 유지해 온 미국조차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제모글루 교수는 “민주주의가 모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면, 그 실감없이 독재 정치에 대한 지지도 이어져 포용적 제도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존슨 교수 역시 “포용적 제도를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경제는 ‘나홀로 호황’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지만, 경제와 정치적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선진국의 핵심 요소인 포용적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하려면 정치와 경제 전반에서 포용적 제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켓 나우

동남아 시장에서 속단은 금물, 문제는 전략



고영경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디지털통상 연구교수

올해 한국의 고피자에 ‘태국의 삼성’으로 불리는 CP그룹이 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CP그룹은 식품·유통·통신 등 사업 분야가 다양한 1위 그룹이다. 양사 협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바이오연료 스타트업 리피드도 주목받고 있다. 리피드는 베트남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해 지속가능항공유(SAF)로 정제하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미 380여 개 글로벌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한 리피드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인한 SAF 수요 급증과 전 세계 폐식용유의 70%가 아시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세안 지역 내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투자도 급팽창하고 있다. 디지털 산업의 빠른 성장과 각국의 데이터 주권 보호 강화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아마존·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라클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동남아에서 데이터센터 투자를 진행 중이며, 여기에 중국의 알리바바와 화웨이, 일본 텔레하우스, 호주 넥스트DC도 가세했다. 향후 3~5년 안에 데이터센터는 두 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친환경 전력 수요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승자독식 구조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실패했다고 아세안 시장을 평가절하하고 돌아서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더 정교한 전략을 수립하고, 동남아의 신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실패는 시장이 아닌 전략의 문제다. 최적의 파트너와 협력하고 명확한 솔루션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피자·리피드처럼.

독자가 행복 해진다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 이력
- 대원외교 불어/출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버러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2> 바보 노무현

“단일화 경선 지면, 후보 주면 되지”... 버려서 얻은 대통령

“차 돌려주세요.”
“어허 안 된다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까요. 차 돌려주세요.”
“걱정 마. 정몽준이 절대 안 나올 테니까.”

2002년 12월 18일, 선거 전날 밤. 여의도를 출발한 차 안에서 대선 후보 노무현과 선거대책위원장 정대철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정몽준이 노무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직후였다. 차는 어느새 정몽준의 평창동 집에 도착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기자들이 대거 진출을 하고 있었다.

정몽준은 끝내 얼굴 한 번 내비치지 않았다. “이미 잡자리에 들었다”는 것이 측근의 설명이었다. 이재정 신부가 현장에 찾아왔고, 함께 기도했다. 노무현의 눈가가 축축해졌다.

“여기서 울면 스타일 구겨, 이 사람이야.” 정대철의 말에 기자들을 의식하고 잠시 웃 매무새를 고쳤다. 1시간 가까이 선 채로 기다리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노무현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렇게 노무현이 문전박대 당하는 장면은 TV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노무현은 낙심천만이었지만, 선대위원장 정대철은 도리어 역전의 기회로 판단했다는 것이 지금의 회고다.

아무튼 대선 막판 최대 변수였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는 선거운동 마감 1시간 30분을 앞두고 허망하게 깨져버렸다. 노무현 캠프엔 청천벽력이었다. 바로 다음 날이 선거일. 투표 날, 여기저기서 내기가 벌어졌다. 드디어 개표가 시작됐다. 초반에 앞서 가던 이회창이 저녁 8시가 지나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노무현의 승리였다. 한 편의 드라마였다.

돌아켜보면 노무현은 그저 그런 군소 후보 중 한 명이었다. 직전 15대 대통령 선거(1997년)에서 근소한 차로 김대중에게 무릎을 꿇었던 한나라당의 이회창이 대세였다. 민주당은 이인제가 5년을 준비해 왔다. 청문회 스타로 눈길을 끌긴 했으나 노무현을 대통령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당내에서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대박이야 아는 법. 노무현은 기죽지 않았다. 2002년 3월, 예선 격인 민주당 경선이 시작된다. 7명의 경쟁한 후보들이 나섰다. 이인제·한화갑·김근태·정동영·김종권·유종근, 그리고 노무현.

명색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 캠프인데, 그는 우선 돈이 없었다. 기탁금 2억5000만원을 만들기도 빠듯했다. 참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02년 12월 12일 강원도 원주 자유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노사모 회원을 비롯한 5000여명의 지지자들은 노란 풍선을 흔들며 노 후보에게 성원을 보냈다. 아래 사진은 대선 이틀 전 경기도 일산에서 합동유세에 나선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의원. [중앙포토]

“설마 노무현이” 관련 연속 민주 경선 광주서 예상 밖 1위하며 승기 잡아 기쁨도 잠시... 잇단 선거 참패로 위기 후보교체론 등장, 당 안팎 사퇴 압박



월드컵 열기 타고 정몽준 깜짝 부상 김민석 등은 탈당하며 노에 등 돌려 “이회창보다는 정몽준이 낫겠조” 끝까지 원칙·소신 지키며 이룬 승리

모들은 머리를 싸맸다.

백원우=“형, 이인제가 엄청 큰 사무실을 구했다는데, 100평이래.”

이광재=“우리로 일단 제일 큰 사무실을 구하자.”

백원우=“임대료는 어찌고?”

이광재=“노무현이는 안 된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 일단 구해.”

이광재는 부인한테는 벤처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재건축이 확정된 낡은 아파트를 팔아서 캠프에 필요한 돈을 조달했다. 안희정은 경영하던 생수회사 오아시스를 팔아 보았다. 조직도 초라했다. 여의도 금강빌딩 한 층을 다 빌렸지만 출근한 사람은 6명뿐이었다. 캠프에 국회의원도 없었고, 노무현 자신부터 국회의원도 아니었다. 순천 출신의 서갑원이 나서서 광주에서 출판기념회(『노무현이 만난 링컨』)를 열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중에 단 한 명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노무현의 당내 기반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말해 주는 단적인 예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16개 지역

경선이 시작됐다. 그런데 노무현에게 운이 따랐다. 국민경선이 처음으로 도입됐던 것이다. 일반 국민투표를 50% 반영한 것. 여기에 모든 후보를 1위부터 최하위까지 적어내는 선호투표제 방식이 더해졌다. 당내 기반은 허약해도 대중 인지도가 높은 노무현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선제도였던 셈이다. 다른 후보들에게는 ‘노사모’와 같은 정치 팬클럽의 지지를 생각도 할 수 없는 시대였다.

막상 경선의 뚜껑이 열리면서 의외의 결과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첫 경선지는 제주. 노무현은 한화갑, 이인제에 이어 3위로 선전했으나 울산에서는 예상 밖의 1위였다. 부산상과 동문과 ‘노사모’가 힘을 발휘한 것이다. 종합순위에서도 2위로 올라선다.

충격의 클라이맥스는 광주 경선이었다. 충남 출신 이인제와 호남 출신 한화갑을 제치고 노무현이 1등을 차지한 것이다. 경상도 출신인 데다 아무 조직도, 연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다. 마침 이회창과의 양자대결 구도

에서 노무현이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큰 도움이 됐다. 전국의 ‘노사모’들이 광주에 몰려들었다. 광주 경선을 계기로 노무현은 승기를 잡은 노무현은 4월27일 서울 잠실체육관 경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노무현을 간판으로 내세워 치른 6·13 지방선거에 이어 8·8 재·보선까지 한나라당의 압승이 이어졌다. 총천하는 것 같았던 노무현의 기세가 주춤하다 못해 곤두박질하는 분위기였다. 외신은 재·보선 결과를 12월 대선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고, 이회창의 대선 승리를 전망했다.

급기야 ‘후보교체론’ ‘신당론’이 등장했다. 당 대표 한화갑이 노무현을 향해 함께 사퇴하자는 ‘백지 신당론’을 꺼냈다. 이회창에게 맞서기 위해 이한동·정몽준 등 제3 후보군까지 끌어들이자 당을 만들고 다시 경선을 치르자는 내용이다. 이른바 ‘반창(反昌)연대’였다. 이 시절, 노무현에게 당에서 선거자금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 진퇴양난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축구협회 회장 정몽준이 노무현을 더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월드컵 4강 신화의 열기 속에 부상하고 있는 정몽준의 등장은 대선 판도에 새로운 변수였다. 월드컵이 만든 반짝 후보처럼 보였지만, 정몽준 또한 나름대로의 대통령 꿈이 있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선친인 정주영 회장이 일찍이 문화일보를 창간한 원모심려(遠謀深慮·먼 앞날을 계획)와도 절대 무관하지 않았다. 2대에 걸친 집념이 다시 때를 만난 것이었다.

노무현은 정몽준에 대해 잘 몰랐다. 민주당이 참패한 재·보궐선거 다음 날, 노무현은 유인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무현=“정몽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태=“책도 많이 읽고, 환경 운동도 하고... 재벌 2세긴 해도 사람은 괜찮습니다.”

노무현=“그러면 이회창보다는 정몽준이 되는 게 낫겠네요?”

노무현은 유인태에게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추진해 달라고 했다. 유인태로서는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싶었다.

“그 당시 단일화를 한다는 건 그냥 후보를 준다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단일화를 추진해 달라고 하니 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지지율이 문제였는데, 어떤 조사에서 정몽준이 앞섰다. 결국 민주당 의원 34명이 모여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후단협)를 만들었고, 김민석 등은 탈당 후 정몽준 진영으로 넘어가서 노무현을 압박했다.

결국 대선을 한 달 앞둔 11월, 노무현은 정몽준 측이 요구한 여론조사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단일화 경선에서 지면 후보 주면 되지, 못 할 게 뭐가 있겠냐”는 것이었다. 단일화 과정에서도 그는 미련스러운 정도로 원칙과 소신에 집착했다. 정몽준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리 약속을 해줘야 한다는 김원기 등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자리 약속하고 대통령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끝내 거절했다. 후일 답을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실 운이 좋았다. 지난 4월의 국민경선 승리보다 이번 승리가 더 갑갑스럽다. 지난 6개월간 내가 얼마나 짓겨져 왔느냐.”

결국 그는 버려서 얻은 셈이었다. 한 달 후, 노무현은 드디어 대통령이 됐다. 그는 후일 재임 기간을 돌아보며 성공과 좌절을 논했으나, 그의 최대 성공은 뭘니 뭘니 해도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이었다. 이장구·손병수·김창우·박유미 기자

혈관이 부르는 첫번째 이름

세종 송보감



- 전통솔잎으로 연구 개발된 세종송보감
- 고농축캡슐 타입으로 개발된 GMP 기준 솔잎농축캡슐
- 임상으로 인정되고 식약처(KFDA)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 혈액순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분
- 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계 건강이 필요한 분
- 혈액순환, 혈관청소가 필요한 분

문의 (703) 256-7671 | www.sejongbiotech.us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여행사USA **실시간상담!**

번역 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현지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윈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남부 카리브해 크루즈
 볼티모어 출발

12박13일 12/7~12/19
\$1390부터 (인사이드)

윈더풀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레나 고 윤태웅

Wonderful TOUR
 2024-25 Yearly Schedule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부터(인사이드)

12/22~12/28 크리스마스 특선 북프랑스+벨기에
 6박7일 \$2490+항공

12/25~12/31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1월 1월 **파타고니아**
 남극과 가장 가까운 '지구의 끝'
 천국과 우주가 공존하는
 여행자들의 지상낙원

10박11일 1/14~1/24
\$6,790 +항공

3월 3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7박8일 3/17~3/24
\$3,190 +항공

4월 4월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0~5/13
\$4,590 +항공

1월 1월 **신비의 인도**
 인도의 수도 델리, 타지마할의아그라,
 핑크시티자이푸르, 피터푸르시크리

12박13일 1/28~2/9
\$3,390 +항공

3월 3월 **페루일주**
 Hola! 특별한 유산의 나라 페루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6박7일 3/23~3/29
\$2,990 +항공

5월 5월 **그리스 & 튀르키예**
 *산토리니 옵션

10박11일 5/6~5/16
\$2,990 +항공

2월 2월 **코스타리카**
 국토가 국립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멋진 자연풍경을 자랑하는 곳!

4박5일 2/4~2/8
\$1,990 (항공포함)

3월 3월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10일 3/27~4/5
\$3,990 +항공

5월 5월 **발칸 크로아티아**
 아픈 현대사를 안고도 때문지 않은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발칸과 중세도시의
 품격 있는 건축물이 압권인 크로아티아

6박7일 5/7~5/13
\$2,990 +항공

2월 2월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2/17~2/26
\$3,590 +항공

4월 4월 **남프랑스**
 수세기 역사를 보유했으며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의 도시를
 한번에 둘러보는 여행

6박7일 4/14~4/20
\$2,990 +항공

5월 5월 **스페인 & 포르투갈**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5/13~5/23
\$3,390 +항공

2월 2월 **아프리카 & 두바이**
 아프리카 & 두바이

13박14일 2/20~3/5
\$9,850 +항공

4월 4월 **정통 서유럽**
 정통 서유럽

10박11일 4/23~5/3
\$3,590 +항공

6월 6월 **아이슬란드**
 지구상의 최북단 정적지역 아이슬란드
 빙하, 화산, 온천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새로운 경험이 되실 겁니다.

8박9일 6/3~6/11
\$5,690 +항공

3월 3월 **남미 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남미 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3/17~3/29
\$5,490 +항공

4월 4월 **정통 동유럽**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특급 동유럽 관광은 유럽의 또 하나의
 역사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입니다.

8박9일 4/30~5/8
\$3,390 +항공

6월 6월 **스위스 알프스**
 취리히를 시작으로 바젤-사프하우젠 등
 스위스 일주를 한번에~

8박9일 6/10~6/18
\$4,590 +항공

1/14~1/24 파타고니아 10박11일 \$6790+항공
 1/28~2/09 신비의 인도 12박13일 \$3390+항공

2/04~2/08 코스타리카 4박5일 \$1990(항공포함)
 2/12~2/23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2/17~2/26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3590+항공
 2/20~3/05 아프리카&두바이 13박14일 \$9850+항공

3/17~3/29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490+항공
 3/17~3/24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8일 \$3190+항공
 3/23~3/29 페루 일주 6박7일 \$2990+항공
 3/25~4/0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3/27~4/05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10일 \$3990+항공

4/14~4/20 봄방학 특선 남프랑스 6박7일 \$2990+항공
 4/15~4/25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4/23~5/03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4/30~5/08 정통 동유럽 8박9일 \$3390+항공
 4/30~5/13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14일 \$4590+항공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990+항공
 5/07~5/13 발칸 크로아티아 6박7일 \$2990+항공
 5/13~5/23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390+항공
 5/20~5/3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5/23~5/26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6/03~6/11 아이슬란드 일주 8박9일 \$5690+항공
 6/10~6/18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9일 \$4590+항공
 6/17~6/27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어) 10박11일 \$2990+항공
 6/18~6/29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6/24~7/04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1690+항공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7/08~7/18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8/05~8/15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8/11~8/16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1690+항공 \$2290(항공포함)
 8/14~8/20 알래스카 일주 6박7일 \$2090+항공
 8/29~9/01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9/08~9/15 알래스카 크루즈 7박8일 \$2190(항공포함)
 9/09~9/19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9/16~9/26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11일 \$2990+항공
 9/24~10/04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990+항공
 9/30~10/13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13박14일 \$4590+항공
 9/30~10/08 정통 동유럽 8박9일 \$3390+항공

10/07~10/13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990+항공
 10/02~10/15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7~10/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3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10/14~10/24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11일 \$2990+항공
 10/16~10/29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21~10/30 튀르키예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외) 9박10일 \$2290+항공
 10/28~11/07 산티아고 순례길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6차 10/29~11/8
 2025 3/25~4/04
 2차 4/15~4/25
 3차 6/17~6/27(영어)
 4차 9/16~9/26
 5차 10/14~10/24

한국관광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1. 워싱턴 최초 디렉트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서울 롯데호텔/전주 만화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림/거제 소노림
 부산 그랜드조선/강주 라한호텔/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3박 4일 서남권 \$899+항공/매주 일
 4박 5일 동해권 \$999+항공/매주 금
 5박 6일 서남+제주 \$1499+항공/매주 일
 9박 10일 전국일주 \$2149+항공/매주 일

동남아 여행
 방콕/미얀마 \$590+항공
 푸켓 \$599+항공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대만 \$499+항공
 싱가포르 \$790+항공

일본 여행
 동경 \$999+항공
 오사카 \$999+항공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분강진) 한국국민 남 \$555/여 \$595
 미국국민 남 \$720/여 \$770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분강진) 남 100만원/여 115만원
 한양대학교(기분강진) 남/여 \$460
 현대백병원/서울대병원(기분강진)

크리스마스 특선
라디오시티 리켓쇼
 일년에 단 한 시간만 공연하는 미국 최고의
 크리스마스 공연 라디오 시티 스펙타클러 쇼 관람

12/23~24 1박2일 \$499

스테이크특식저녁,
 브루클린 럼보 야경 포토타임

뽕스키빙 특선
뉴욕
 썸릿, 베슬, 리틀 아일랜드

11/29일(금) 1박2일 \$450

성극 대니엘 +아미쉬마켓 당일
 11/7, 11/14, 12/12 \$199

동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몬트리올/퀘벡
 플라츠버그/뉴욕

매주 일출발
 5박 6일 \$1350

대형버스 출발: 10/28

뉴욕
 나이아가라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2박 3일 \$650

뉴욕
 1박 2일 \$399

참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199(주말)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일출발 8박 9일 \$150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일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일출발

옐로스톤
 3박 4일 \$93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OCT. 24th - OCT. 31st, 2024

HI-CHEW

과일의 상큼 달콤함이 가득한 쫄깃한 캔디

Immensely Fruity, Intensely Chewy Candy



모리나가 하이츄 캔디(다양한 맛)

Morinaga Hi-Chew (Selections are Various)

\$8.99

\$4.99

10.59~12.7 OZ

편집증 오해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종결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70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erling, VA
30 Pigeon Hill Dr.,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605 Metroloch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00 Farmwell Hunt Place
Ashburn, VA 20147

Herndon, VA
430 Dalem Street
Herndon, VA 20170

El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0

Catonsville, MD
60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02 Vie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October 24,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한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당한 임금에 보답합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베이비부머 · X세대 노린 단층주택 인기

요즘 뜨는 주택 건축은
최근 몇 년간 주택 건설업계는 자체 공급 부족과 급격한 비용 상승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건축 전문가들은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원자재 가격 변동, 인건비 상승 등과 같은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건설업체들은 건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객의 니즈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이다. 이 같은 건축업계 현안을 반영한 최근 건축 디자인 트렌드를 알아봤다.



팬데믹 이후 가족간 유대를 위해 함께 식사하고 요리할 수 있는 넓은 주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 [unsplash.com 제공]

▶사전 마감 바닥재
최근 주택 건축업계에서는 사전 마감된 엔지니어드 플로어(Prefinished Engineered Floors)가 주목받고 있다. 이 바닥재는 공장에서 미리 샌딩과 마감 처리가 완료되어 현장에서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자재비와 인건비 등 비용 절감 측면에서 큰 장점을 지닌다. 그래서 건축 시 빠른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건축업체 및 건축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또 공장에서 엄격한 환경에서 마감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감된 바닥재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다.
특히 대부분의 제품이 자외선 경화 처리(UV Curing)가 돼 스크래치와 변색에 강하며 습기에 대한 저항력도 높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지 및 보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팬데믹, 인건비·자재값 상승으로 3D 프린팅, 주상복합 단지도 선호

▶친환경 주택
전기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주택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친환경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가주에서는 주민들이 전기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대신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늘어 집 근처에서 쇼핑, 식사,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서 주거, 상업, 문화 공간이 결합된 주상복합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글렌데일 소재 '아메리카나 옛 브랜드(Americana at Brand)'. 이 단지 안에는 주거 시설을 비롯해, 백화점, 레스토랑, 영화관, 카페 등이 몰려 있어 생활과 동시에 여가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단층 주택
단층 주택은 베이비부머뿐 아니라 은퇴 앞둔 X세대 주택 구매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건축 전문가들은 "단층 주택은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감을 제공하며 비용 면에서도 2층 주택보다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태양열 발전을 사용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태양광 패널이 있는 주택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건축 전문가들은 "태양광 패널과 이를 통해 생성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주·야간 모두 집 전체 전력 및 전기차 충전까지 거의 무료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명한다. 게다가 최근 건축과 리모델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업체와 건축주 모두 2층 주택 보다 단층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3D 프린팅
3D 프린팅 기술도 최근 건축업계의 중요한 트렌드다. 세계 최대 규모의 3D 프린팅 주택 단지인 텍사스 조지타운 소재 울프랜치(Wolf Ranch)는 3D 프린팅을 통해 최근 총 100여채의 주택을 완공했으며 현재 25% 이상이 분양된 상태다. 3D 프린팅 건축은 건축 비용을 줄이고 건설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매력. 또 내구성이 뛰어나 습기, 곰팡이, 해충 등에 대한 저항성도 크다.
▶넓은 주방
팬데믹을 거치며 주택 건축에 가족 중심적인 디자인이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주권 객원기자
▶4'면 '단층주택'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1 \$1,1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페어팩스 코스트코 근처에 있는 멋진 집. 업그레이드	2 \$1,30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박물관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3 \$8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 집, 마루바닥, 넓은 뒷뜰	1 \$630,000 Sykesville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2년된 새 타운홈. 아주 모던하고 고급, 집 뒷편으로 숲	2 \$985,000 N. Potomac 싱글홈 방 6, 화장실 3+1, 차고 2 집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마루바닥	1 \$1,200,000 워싱턴 디씨 SE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새집, 모던한 스타일의 고급 타운 하우스
4 \$1,900,000 페어팩스 새 싱글 방 4, 화장실 3+1, 차고 2, 만우아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 집	5 \$2,300,000 옥튼 새 싱글 방 5, 화장실 4+1, 차고 2 1.8 에이커의 넓은땅에 지어진 새 집, 옥튼 HS	6 \$2,200,000 맥클린 싱글 방 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린 HS	3 \$1,025,000 N. Potomac 싱글홈 방 5, 화장실 3+2, 차고 2 고급스러운 벽돌집, 넓은 부엌, 마루바닥	4 \$1,325,000 포도팩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좋은 위치에 있는 고급 주택, 넓고 고급스러운 부엌, 넓은 욕	2 \$1,150,000 워싱턴 디씨 NW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고급 타운 하우스



1000만원 있다면 금·밸류업 1억원이라면 헬스케어·방산

인공지능(AI) 고점론, 엔 캐리 트레이드(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해외자산에 투자) 청산,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하룻밤 사이에도 시장의 온도가 달라진다. 변동성이 클수록 투자자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전문가에게 던졌다. '지금 당장 무엇을 살까요?' 답을 준 3인의 투자 전문가는 김남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 본부장, 목대균 KCGI자산운용 운용총괄대표(CIO), 신영덕 KB증권 WM투자전략부 이사(가나다 순)다. 각자의 주머니 사정과 투자 성향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1000만원·1억원·10억원 금액별 나눠 투자처를 담았다. 자산별 투자법 등 상세한 정보도 함께 담았다.

③미국 AI 혁신 테마·한국내 밸류업: AI 시장 성장의 의구심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장기 이익 성장세가 탄탄한 만큼 시장의 기대는 점차 강해질 전망이다. 금리 인하는 성장주에 우호적인 환경이라 미국 AI 성장 테마 관련 주식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엔비디아의 성장성과 시장 주도력이 약해졌다. 매그니피센트7(M7) 중 엔비디아를 제외한 'M6(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구글·아마존·테슬라)'을 긍정적으로 본다. 한국 시장에 투자한다면 밸류업 관련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한 종목, 특히 금융 관련 종목은 좀 더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투자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AI 투자가 눈에 띄는 결과 없다는 시장의 우려가 있으나,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는 여전히 AI에 대규모 투자를 할 거라도 밝히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도 AI가 핵심이기 때문에 최근 조정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오라클, 메타 등 AI를 활용한 산업화 모델이 시장에서 서서히 인정받고 있다. IT(정보기술)는 물론 자동차에도 AI가 적용된 상품화 모델이 속속 등장할 것이라서 좋은 투자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1000만원 있다면 어디에 투자할까

①K-신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금리 인상기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본 섹터(업종)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로 골드락스(고성장에도 물가가 안정적인 상태) 장세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상관없이 인공지능(AI) 분야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AI산업의 핵심인 전력 인프라 투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관련주 성과도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신재생 에너지 업체에 대한 실적 눈높이는 낮아져 있다. 3분기 때 약간의 '어닝 서프라이즈'만 기록해도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 걸로 보인다. 한국내 풍력발전 설비제조 업체인 '씨에스윈드(CS WIND)'가 2분기 실적 발표 때 '빅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주가 반등에 성공했다.

②금광 기업 주식: 금(金)은 금리 인하로 인한 통화까지 하락 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금과 금광 기업 주식은 다른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수요가 있을 때 가격이 상승한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 전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과거 다섯 차례(2004~2020년) 수치를 돌아보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10월의 수익률 평균은 -4%였다. 금광 기업 주식은 금 가격의 상승 시 더 큰 주가 상승을 보일 수 있다. 금 가격은 연초 대비 약 30% 올라 있다. 금값이 크게 오르면 금광의 채산성 때문에 금광의 가치도 주목받기 시작한다. 1000만원 정도를 저평가된 중소형 금광 기업 주식을 찾아 투자한다면 높은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투자 예상 기간은 3개월로 제시한다.

지금 1억원 있다면 어디에 투자할까

①미국 중형주: 미국 중형주는 Fed가 처음 금리를 내린 뒤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 지수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후 1년 뒤 S&P400 중형주 지수 수익률의 중앙값은 13%로, S&P500 대비 3%포인트, 러셀2000 대비 8%포인트 높았다. 올해 9월 기준 S&P400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5배다. S&P500의 PER는 21배, 러셀2000 PER는 28배다. 중형주가 대형주나 소형주 대비 가치 측면에서 매력적이다. 투자 예상 기간으로는 2년을 제시한다.

②주식 60%, 채권 40%: Fed의 금리 인하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바라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과 고용 시장 둔화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주식, 채권 등 다각화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가 4%를 밑돌며 주식과 채권의 자산배분 효과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식 60%는 AI 30%, 우주항공·방산 10%, 헬스케어·리츠 10%, 인도 10%로 채울 것을 제안한다. 집중 투자를 원한다면 AI와 우주항공·방산 분야로만 압축해 투자해도 좋다. 우주 개발은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이어질 장기 정책 과제다. 채권은 중장기 국채와 우량 회사채를 나눠 사는 것을 추천한다. 중장기 국채는 경기 둔화 우려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급락한 금리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③글로벌 AI인공지능: 엔비디아 등 AI 하드웨어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는 현재 시점이 가장 좋은

지금 10억원 있다면 어디에 투자할까

①헬스케어·리츠, 저쿠폰 채권: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고액 자산가일수록 저쿠폰 채권을 통한 절세 효과 확대를 노려야 한다. 시장금리 하향 안정화에 수혜를 볼 수 있는 한국내 제약·바이오와 미국 리츠를 포트폴리오 내 위성전략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제약 업계의 공급망 재편은 한국 바이오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리츠는 AI 테마와 연관성이 높은 미국 리츠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신흥국 주식은 인도 주식을 여전히 가장 좋게 본다. 중국은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에 따라 단기 반등이 기대되지만, 지속적인 반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중 갈등 완화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②한국 고배당주: Fed의 금리 인하 전후로 미국 금융주는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밸류업 지수가 확정된 한국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금융주 등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기대된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금리가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채권 대비 배당주의 매력이 돋보일 것이다. 고배당주는 액티브한 운용으로 배당률 이상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ETF 등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③채권 60, 주식 40: 금리 인하 시기에 채권 가격은 일반적으로 상승한다. 원화 단기채 40%와

달러화 장기채 20%를 보유해 통화 분산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주식은 미국 성장주 20%, 미국 배당주 10%, 신흥국 주식 10%를 추천한다. 미국의 '러셀1000 성장(Russell 1000 Growth)지수'는 2006년 이래 연평균 16%의 수익률을 보였다. 원화 단기채는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처가 될 수 있다. 달러 장기채는 미국의 금리 인하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할 경우, 가격 상승을 통해 환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미국 기업은 탄탄한 성장성과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갖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높은 만큼 주가가 조정받을 수도 있다. 신흥국 주식으로 투자 지역과 시장을 다양화해 투자 위험을 분산하면 좋다. 투자 예상 기간은 3년이다.

안호성 기자



QR코드를 스캔해 The JoongAng Plus에 접속하면, 돈이 되는 '머니랩'의 보다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주소	기간	세입자
★ 주택	SOLD	\$900,000	*계약 후 10일내 세입자 완료 현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Fairfax, VA	\$3,500	Mantua ES, Frost MS, Woodson HS 권 싱글하우스 렌트. 부엌, 화장실 upgrade 된 집, 10월 1일 입주 가능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 사업체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22*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3년	교민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2+1년	국제기구
				1*89 Dawson St, Vienna, VA	2년	교민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3년	주재원
				1*40 Kensington Rd, McLean, VA	1년	주재원
				7*51 Tremayne Pl, McLean, VA	1+1년	주재원
				411* 11th St, Arlington, VA	2년	주재원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3년	국제기구
				2*69 Oakborough Sq, Oakton, VA	18개월	주재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30~40년 이상의 최상급 산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무조건 감세는 지속가능 재정 위협... 금투세 보완 후 시행을

금융투자세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2020년 6월 도입 발표 후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 2022년 2년 유예로 내년 실시가 예정됐지만 정부·여당은 폐지를 주장한다. 금투세는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단순하게 통일하고 거래세를 중장기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합당한 근거가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리에 맞고 금융상품 간 세금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여러 금융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하나로 합쳐 계산하기에(손익통산)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대만 증시 폭락은 금융실명제 때문

시장이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합리적 근거 없이 논란만 난무한 상황은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킨다. 금융 시장에는 ‘자기충족적(self fulfilling) 예언’이란 현상이 있다. 나쁜 일을 계속 언급하면 결국 그 일이 일어나곤 한다. 금투세는 오해가 많다. 금투세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이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에게만 불리한 세금이라는 어이없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투세는 소득세이므로 내국인만 해당된다. 외국인인 제 나라에서 세금을 낸다. 법인의 금융투자 차익은 법인세에 포함된다. 대만이 금투세 시행으로 증시가 폭락해 결국 금투세를 폐지했다고? 대만 증시 폭락은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금융실명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근거 없는 주장은 금투세 도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그 수용성을 떨어뜨린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시행을 유보하고 데이터를 통해 냉정하게 시장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투세는 일단 유예하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납세자가 수용 가능한 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금융자산 과세제도의 대안으로 종합과세 체계와 이원적 소득세제(DIT: Dual Income Tax)가 거론됐다.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린 것은 종합과세 체계로 방향을 설정한 것이었다. DIT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근로/사업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것으로 금투세는 DIT의 방향이다.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자본이득, 이자, 배당이 발생한다. 현행 금투세는 자본이득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자와 배당은 종합소득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펀드투자에서 배당을 받으면 2000만원까지는 15.4%로 분리과세되고, 이



현행 금투세는 조세 중립성 위배 주식만 우대하는 것이 공정한가

금투세 목적은 자본시장 선진화 일반주주 보호 위한 제도 정비

재정수요 파악 후 부담자 정해야 공제 줄이고 세제는 단순화하길

를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현행 금투세는 종합과세와 DIT를 절충한 제도인 것이다. 금투세가 DIT의 성격을 갖고 과세체계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뿐만 아니라 이자와 배당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도입 목적에 부합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주식/채권, 공모/사모펀드 등 개인의 투자 선택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금융상품별로 다른 과세체계를 단일하게 통합하려는 목적이 이 절충으로 인해 깨어진 것이다.

주식과 다른 금융상품 차등 적절인가

조세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새로운 세금이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조세의 중립성’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과제다. 물론 정책 목표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형 펀드의 경우 5000만원까지 비과세지만, 그 외 모든 금융상품은 250만원까지이다. 자본시장에서 주식

시장의 중요성을 참작해 금융상품의 비과세를 차등적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등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금투세 도입을 발표한 2020년에는 주식에 대한 공제가 2000만원(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점)이었다가 투자자들의 반발 때문에 5000만 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최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제시됐다. 자본시장 투자 인구가 크게 늘어 1400만 명이 넘을 뿐만 아니라 채권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한다. 주식만 우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상장주식과 공모펀드의 환매차익은 금투세의 대상이 되지만 사모펀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금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투자자는 공모펀드,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인데 그 이득을 다른 이름으로, 다른 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다. 그 목적이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때 미세한 간극이 있으면 납세자는 이 문제에 주목하고 그 세금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미세한 부분까지 조율해야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고 과세당국은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과세대상자를 설득했어야 했다. 지난 2년간 그런 노력이 있었는가? 세상에 완벽한 세금-제도는 없다. 금투세 도입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종합과세와 이원적 소득세라는 상

반된 조세정책 방향을 절충해 생기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히 논쟁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특히 투자손실을 보전해 주는 금투세의 이월손실공제를 실시 이전 5년까지 소급하는 방안도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소수자 다수결’ 도입 고려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도입됐다. 주식시장에서 일반주주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 제382조의 3항의 이사 총실의 의무의 개정을 비롯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에 더해 지배주주가 최고경영자(CEO)를 겸하고 있는 경우, 지배주주와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소수 주주의 동의를 구하는 ‘소수자 다수결’(MoM: Majority of Minority)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이 제도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에서 권장하는 것을 비롯해 각국이 독립적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지배주주가 회사의 CEO를 겸직하고 관계회사와의 거래 및 합병을 통해 일반주주의 이해를 배제하면 일반주주는 시장을 불신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다. 둘째,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세제를 전면 정비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의 세수 부

족이다. 2023년 50조원이, 올해는 약 3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상속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약화, 법인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반도체 산업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저출생·고령화, 에너지 전환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금을 없애거나 깎아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이렇게 해도 나라 살림살이가 될까 의구심을 갖게 된다.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은 재정수요를 파악하고 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세제개혁 논의를 시작할 때다. 금투세가 종합과세와 이원적 소득세제를 절충한 이유도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이자, 배당을 금투세로 포함할 경우 소득세 종합과세, 즉 소득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각종 세목은 서로 연결돼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세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상속·증여세 세율 문제는 소득세율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한국 조세제도는 공제가 너무 많고 복잡해 납세자가 스스로 부담할 세금을 잘 알 수 없다. 그때그때 정책 수요에 따라 공제 제도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 (전 국회의원)
▶ 4면 ‘금융투자’로 이어집니다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길로우 프라이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김경아의 독점 COMING SOON LIST!!

1. 윗브리지 타운홈
2.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3.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4. 매나사스 타운홈
5. 버크 싱글홈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FAIRFAX REALTY 50%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김경아

메디케어!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전트

프라임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This is an advertisement.

프라임 보험(조앤김)
상담전화 **(703) 861-9923**

14641 Lee Hwy #D3, Centreville, VA 20121
 7535 Little River Tupk.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2025 메디케어 변경 및 등록]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 2024년 10월 15일 ~ 12월 7일

2025년 플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 눈높이 상담 • 쉬운 설명 • 보험료 및 의료혜택 비교

현재 메디케어 플랜 가입자 / 1960년생이신 분들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파트 A & B	파트 C	파트 D
상담 내용	서플리먼트, 플랜 A,B,G,K,L,N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이중 특별 필요 플랜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어 (모든 메디케어 대상)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X] organization which offer [X]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청약제도 통합 ... 청약예금으로도 '공공분양 로또' 도전 가능

3기 신도시 같은 공공분양과 강남 재건축 같은 민영주택 간의 청약 장벽이 없어진다. 복잡하게 나뉘었던 청약통장이 통합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시세 9억원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을 길도 열렸다. 분양시장으로 들어가는 청약 문이 넓어지고 문턱은 더욱 낮아지면서 새 아파트 '로또'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입구가 넓어지는 대신 마지막 당첨 관문은 낙타가 들어갈 바늘구보다 더욱 협소해질 것 같다.

저축·부금·예금 등 청약조건 구분 없애

46년 전인 1978년 청약제도가 만들어진 때부터 나뉘어 있던 청약통장별 청약자격 제한이 이달부터 없어졌다. 통장 전환을 통해 이제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종합저축 등 네 가지가 있다. 임대료가 아닌 분양주택은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공공분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건설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이고 나머지가 민영주택이다.

저축은 공공분양에, 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2015년 저축·부금·예금을 통합해 어느 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인 종합저축이 생겼다. 이후 저축·부금·예금 가입을 할 수 없게 됐지만 기존 가입자 137만명의 통장은 아직 살아있다. 이들은 청약이 제한된 주택에 청약하려면 통장을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했다. 해지 전까지 쌓아둔 통장 가입 기간이나 청약저축액은 물거품이 됐다.

이달부터는 종합저축으로 갈아타

종합저축으로 바뀌도 효력 유지 공공분양 잔여공급 등 즉시 자격 공시 5억 수도권 단독 무주택 간주 청약 경쟁률, 당첨가점 치솟을 듯

라도 기존 통장의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청약 자격이 확대된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전환 시점부터 통장 가입 기간이나 저축액이 산정된다. 가입 기간 15년, 저축액 1800만원인 청약저축 통장을 가진 사람이 종합저축 전환 후 공공분양에 청약하면 기존 15년, 1800만원을 그대로 인정받지만 민영주택에선 가입 기간 '0'이다.

그래도 전환하는 게 낫다. 추가로 청약 기회를 갖게 되는 주택의 청약자격을 얻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6개월이면 공공분양·민영주택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신생아)에 청약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 1년이면 1순위 자격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만 2년이다.

추첨으로 뽑는 공공분양 잔여공급(20%)은 전환 즉시 자격이 나온다. 잔여공급은 저축액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는 우선공급(80%)에서 탈락한 1순위자와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하기 때문이다.

지금 부금·예금 가입자가 종합저축



이달부터 무주택 기준 등 청약 규제가 완화돼 새 아파트 건본주택이 더욱 북적거릴 전망이다. 청약 통장 전환이 쉬워지고 무주택 간주 범위가 넓어진다. 사진은 지난 8월 분양한 서울 아파트 건본주택 모습. [중앙포토]

으로 전환하면 당장 다음 달 나올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 금토지구 공공분양을 두드려볼 수 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3억원 이상 저렴한 것으로 예상되는 '로또'다. 사전청약한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분청약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민영주택으로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서울 강남과 용산 일대 분양가상한제 단지들이 내년 이후에도 줄줄이 나올 예정이다.

이월무 미드미네트웍스 대표는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분양·민영주택 어디든 청약할 수 있는 '만능 열쇠'를 갖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세 9억' 단독주택도 무주택 간주

집을 소유하고 있어 쓸모없던 청약 통장이 빛을 본다. 정부는 무주택 간주 범위를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6000만원(지방 1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전용 85㎡ 이하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단독·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포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5억원이면 시세가 9억원가량이다. 이에 해당하는 주택이 전국적으로 150만

가구 정도로 추정된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죽은 청약자격을 되살아낸다. 이달부터 사전청약 당첨자가 기존 당첨을 포기하지 않고도 청약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재당첨 제한 규정에 따라 포기부터 해놓고 당첨이 불확실한 가운데 청약해야 했다. 이제 사전청약 당첨 포기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다른 주택에 청약해 당첨돼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상실하면 자연히 분청약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청약에 당첨되면서 상실된 청약통장 효력이 이달부터 복원된다. 당첨된 뒤 통장을 해지했다면 가입 은행에 방문해 부활시키면 된다.

1000대 1 넘어서 청약경쟁률

현 정부 들어 있던 청약규제 완화로 청약 기회는 많아지지만 사실상 당첨은 더욱 요원해진다. 이미 고공행진하고 있는 청약경쟁률이 더욱 하늘을 찌

를 짓기 때문이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훨씬 저렴한 '로또'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어섰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울3지구 재건축 단지(디에이치대치에펠루이)의 일반공급 경쟁률이 1026대 1을 기록했다. 15일 서울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경쟁률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558대 1, 일반공급 1148대 1이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을 좌우하는 청약가점(만점 84점) 커트라인이 74점까지 올라갔다. 지난달 20일 6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 재건축 단지(청담르엘) 당첨자의 청약가점 최저가 74점이었다. 74점은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각각 15년 이상인 5인 가족에 해당하는 점수다. 앞으로 비아파트를 보유한 청약가점 고점자도 청약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현 정부에서 추첨제 확대 덕에 1주택자도 기회가 생겼지만 당첨 확률은 더욱 낮아진다. 가점제와 무주택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은 적은 물량을 놓고 탈락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쟁하기 때문이다. 디에이치대치에펠루이 전용 59㎡A타입 일반공급 107가구에 1만9104명이 몰려 경쟁률이 1910대 1이었다. 하지만 1주택자가 당첨을 노릴 수 있는 물량은 가점제(4가구)와 무주택자 추첨(5가구) 물량을 제외한 1가구뿐이어서 실제 1주택자 추첨 경쟁률은 1만9095대 1이다. 당분간 청약통장 전환자는 가점이 높지 않아 추첨제 경쟁자가 늘어나게 된다.

청약 문턱이 거의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높아지면서 분양시장은 분양가만이 아니라 당첨도 운에 맡겨야 하는 '로또'가 됐다. [안정원 부동산선임기자

▶ 1번 '단층주택'에서 이어집니다

건축 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요리하고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주방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큰 레인지와 오븐, 조리대, 여러 개의 싱크대를 갖춘 넓은 주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

▶ 뒷마당

집값과 주택 유지비 등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집을 떠나 여행하기보다 집에서 휴식하기를 원하는 홈오너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뒷마당이나 패티오가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 식사나 파티를 즐길 수 있는 부대 시설인 월풀 스파, 수영장, 야외 라운

지, 야외 주방, 어닝 등이 있는 뒷마당이 인기다. 이외에도 야외 벽난로나 화덕 등이 있는 뒷마당도 각광받고 있다.

▶ 도파민 데코

팬데믹을 거치며 주택에 정신건강 및 웰빙을 위한 기능이 강화되면서 '도파민 데코'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다.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도파민 데코는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물질인 도파민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이 장식법은 생동감 있는 색상, 다양한 텍스처, 재미있는 패턴을 통해 거주자들에게 행복감과 따뜻함, 그리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실내뿐 아니라 야외 공간도 강렬한 색상으로 꾸미는 도파민 데코도 인기를 끌고 있다.

▶ 3번 '금융투자'에서 이어집니다

복잡한 공제 중 그 효과를 이미 달성한 것을 없애고 단순화하는 것이 세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금투세 악마화는 무책임한 주장

금투세는 금융상품별로 상이한 세제를 단순하게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종합과세와 DIT를 절충한 결과, 동일한 투자 행위에 대해 상이한 세금이 적용되는 등 디테일에 문제도 있다. 이를 부각해 금투세를 악마화하고 대안없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는 아니다. 차분히 데이터와 근거를 갖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



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감세 기조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흔들고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각종 제도개혁과 함께 전반적인

세계개혁 논의가 필요하다. 건전재정은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다. 감세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재정운용은 정부의 실력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 그를 위한 재정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조세제도 마련은 정부와 국회의 일이다. 이것이 전제돼야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준칙 마련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2024년 예산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9%로 재정준칙의 한도인 3%를 초과하는 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재정건전성, 재정준칙을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능력을 의심케 한다. 이제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일을 하자. [안정원 부동산선임기자

1석 5조 통합보험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10월



리스팅



독점 매물 \$49만불

옥스힐/매릴랜드
MGM 카지노에서 10분거리 위치한 싱글홀,
방4개 화 3, 차고 1. 모두 수리된집

17년 부동산 경력의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선정
16년 연속 탑 에이전트의 풍부한 부동산 경험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촉을 늘 감지하는 비키리 부동산으로 전화주세요.
부동산 투자 실수가 없습니다.
셀러, 임대주택 렌트 - 모든 온라인매체에 광고 노출을 제일
많이하며, 빠른시일내에 매매가 성사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바이어 대기 - 센터빌, 페어팩스에 위치한 깨끗한 콘도 매물 찾습니다.



독점 매물 \$68만불

우드브릿지 싱글홀
2005년 지어진 깨끗하고 잘관리된집
방4개 화 4.5 차고 2 렌트도 가능



독점 매물 \$57만불

알링톤 콘도
방2/화 2 모두 수리된집, Clarendon
메트로역에서 1 마일, 펜타곤과 인접집



디씨 콘도 렌트 , 스튜디오 \$2100 어메리칸 대학, 조지타운대학, 조지와싱턴 대 차로 10분거리

스털링 2024년 지어진 새 콘도 \$2800 방2 + 화2 즉시 입주 가능

덤프리 타운하우스 \$2350 방3, 화2.5 , 즉시입주 가능

우드브리지 콘도 \$2800 2005년 지어진 새 콘도 방3 + 화2, 차고 1 게이트 커뮤니티 넓고, 밝은 깨끗한집, 즉시 입주가능

타이슨코너에 인접한 타운하우스 비엔나 \$3300 방3+ 화3.5, 지하실 넓고 작은 뒷마당겸비, 즉시입주가능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대표/악착같은 부동산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제이슨성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멜로루즈 세금

사회시설 건설·유지비로 매년 4000불 이상 동가에 더 큰 주택과 쾌적한 환경 등이 장점

주택을 구매할 때 유의해 살펴봐야 할 부분이 세금이다. 주택세금은 주 정부의 수입으로 각 카운티에서 부과하여 주 정부로 들어가는데, 카운티마다 또 카운티 내에서 각각의 커뮤니티마다 세금 부과액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주택가치 1% 정도의 기본 세금에 소방서, 도서관, 경찰서, 수도, 도로 정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씩 더해 1.2~1.5% 정도가 된다. 최근 지어진 주택인 경우에 공원, 도로 등 건설 및 유지비용으로 오래전에 지어진 주택보다 세금이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특별부과금 중에 유독 큰 금액이 멜로루즈 세금(MelloRoos Tax)이다. 다른 주택보다 40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주택이 있어 바이어를 놀라게 한다. 특히 새집을 분양하는 경우 대부분 멜로루즈 세금이 붙어 있다.

멜로루즈 세금은 특별부과금의 한 종류로, 새로 지어지는 주택단지 내의 사회적 생산기반,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 댐, 도로, 및 학교, 병원, 공원 등 사회 복지환경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위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1982년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헨리 멜로와 주 하원의원 마이클 루즈가 만든 법이다.

그들의 이름을 따서 멜로루즈 세금이라고 부른다. 이 세금은 시, 카운티 정부 또는 교육부에서 만든 멜로루즈 커뮤니티 시설 구역(CFD)에서 정하게 되는데, 지역마다 세금부과 기간이 조금씩 다르나 주택단지가 건설되고 난 뒤 15~36년간 매년 집주인이 받는 세금청구서에 포함돼 1년에 두 차례 다른 세금과 함께 내게 된다. 세금의 세부항목에 CFD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이 멜로루즈 세금이다.

멜로루즈 세금은 바이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바이어가 멜로루즈 세금이 없는 주택을 선호한다.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주택을 소개할 때 반드시 바이어들에게 이 세금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요즘의 새집 분양 사무실에 가 보면 멜로루즈 세금을 알려주길 해야 하는데, 바이어들의 거부감이 크니 예를 들어, 1년에 4200달러라 하지 않고 매달 350달러라고 붙여 놓기도 한다. 새집 분양하는 모든 주택단지에서 멜로루즈 세금이 부과되면 이 세금을 안고 사야 하니 이를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멜로루즈 세금이 바이어에게 긍정적인 점도 많다. 우선 이 세금이 없는 주택보다 같은 가격으로 조금 더 큰 집을 살 수 있다. 건설사들이 멜로루즈 세금이 있는 집은 같은 시세로 좀 더 큰 집을 살 수 있게 한다. 즉,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으니 좀 더 큰 집을 사게 하여 바이어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더구나 기존에 건설된 주택단지보다 더 크고 더 멋진 공원과 공동시설, 더 깔끔한 도로와 관리, 더 업그레이드된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주택단지의 가치를 올려놓기도 한다.

필자가 에이전트로 있는 발렌시아 지역의 신규 주택 분양단지를 지난 20여년 동안 살펴본 결과, 멜로루즈 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새집이 적절히 분양됐으며, 몇 년 후 집값이 적절하게 올랐고, 대부분의 집주인도 이에 대한 부담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된 새집, 좀 더 크고 넓은 실내 구조, 깔끔한 새 단지, 새 주거시설과 쾌적한 환경에 만족하고 있었음을 알려 드리고 싶다.



준리 콜드웰 뱅커 베스트 부동산

새집 분양의 단계

지역 선정부터 최종 확인까지 단계마다 꼼꼼한 확인이 중요

새집 분양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주택 구매 과정에서 유능한 부동산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에이전트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고 구매 과정에서 확실한 나의 대변인이 된다.

먼저 위치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학군, 교통, 편의시설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빌더의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해서 집의 구조나 디자인, 시설 등을 확인한다. HOA(Home owners association) 관리비가 얼마이며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재산세와 멜로루즈 텍스가 있는지, 이 땅이 전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몇 채가 지어지는지 등 정보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

모델하우스들의 플랜을 잘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빌더가 추천하는 렌더에게 용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받고 나면 그 승인서와 다운 페이먼트 인증서를 빌더에게 제출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플랜에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웨이팅 리스트에 올린다.

이후 빌더가 분양 시기를 발표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분양공고를 받게 된다. 보통 사전 자격 평가를 받은 사람 중 선착순으로 분양이 진행되기 때문에 분양공고 받은 날짜에 오피스를 찾아가 대기하고 있어야만 한다. 한 명씩 부를 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부를 때 그 자리에 없으면 선택권을 뺏길

수 있다. 원하는 집을 분양 받았다면 빌더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불하게 된다.

구매 계약이 끝나고 나면, 따로 연락을 받게 되는데 빌더의 디자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택의 옵션을 선택하게 한다. 마루 바닥재, 조명, 주방과 욕실디자인, 벽지나 타일의 색상, 전기 및 조명 관련 옵션, 스마트 조명 시스템 등의 옵션이다.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솔라 에너지 시스템을 구매할 것인지 리스할 것인지도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을 업그레이드하면 그 값이 더해져 최종 분양가가 결정된다.

빌더가 시로부터 입주허가서를 발급받으면, 클로징을 준비한다. 용자가 착오 없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 단계로는 최종 확인을 하게 된다. 이때 전체적인 외관과 내부 상태를 확인한다. 창문과 문의 작동, 전기 및 조명 시스템 작동, 수도 배수시설 작동 확인, 난방 및 냉방 시스템 작동, 바닥재, 벽면, 천장의 손상 여부 점검, 주방과 욕실 시설의 작동, 인테리어 마감 상태, 페인트 상태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클로징에서 대출을 완결하고 다운 페이먼트를 지불한다. 동기가 완료되면 드디어 새집의 열쇠를 받게 된다.

새집을 구매한 후, 건축업체의 보증서인 워런티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새집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해결하려 들지 말고 빌더에게 연락하여 워런티 서비스를 요청한다.

부동산 이야기

매매 가격 산정

적정 가격 설정이 빠른 판매의 조건 빠른 판매로 비용과 시간 절약해야

현재는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숨죽이고 있는 마켓이지만, 바이어 마켓에 더 가까운 마켓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러의 입장에서 적정 매매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건물 자체가 시장에서 구매자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적정 매매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 ▶시장 조사: 주변 유사한 매물들의 가격을 조사하여 시장에서의 평균 가격대를 파악합니다.
▶현실적인 기대 설정: 셀러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리스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의 가격 조정을 고려한 전략입니다.

▶가격 차이의 영향: 상업용 건물의 경우, 5만~10만 달러의 가격 차이가 마케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가격을 설정하여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도록 합니다.

▶협상 과정 고려: 셀러는 초기 리스팅 가격에서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장 적정 가격 반영: 적정 가격에 리스팅하면 예상보다 더 좋은 오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과도한 가격 책정은 매물이 시장에 오래 머물게 되어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셀러가 높은 가격을 고수했고 까다로운 바이



어를 만나 에스 크로를 클로징하는 데 1년이 넘게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셀러는 변호사 비용과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적절한 바이어와 빠르게 협상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가격 설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필요한 전략으로 아래 3가지 방법을 조언해 드립니다.

▶적정 가격 설정: 현재의 바이어 마켓에서는 시장에 맞는 적정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바이어는 시장 가격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격을 설정하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결정 유도: 적정 가격에 리스팅된 매물은 보통 한 달 안에 결정이 납니다. 매물이 시장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시장 노출 시간 최소화: 매물이 시장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일반적이지 않은 바이어를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빠르게 매매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정 매매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셀러는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 적정 가격을 산정하며, 협상 과정을 고려하여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물이 시장에서 빠르게 거래되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셀러와 바이어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렉스 유·CBRE Korea Desk 대표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후원 주택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세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Table with 5 columns and 2 rows of property listings. Columns include location (Hanover, Laurel, Edgewater, Odenton, Perry Hall, Catonsville, Elkridge, Ellicott City, Jessup, Ellicott City), price, and status (SOLD, UNDER CONTRACT, COMING SOON).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Table with 6 columns of rental listings including location (Elkridge, Sliver Spring, Germantown, Hanover, Germantown, Glen Burnie), price, and details.

메디케어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오바마 헬스케어

등록기간: 11월 1일 ~ 1월 15일

“개인보험, 그룹보험 플랜변경 및 새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



집보험



생명보험

19년의 경험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KWAK & CHANG FINANCIAL INC.

에이전트 모집

건강보험 (치과, Vision), 401K, Pension 제공
경험없으신 분 환영, 라이선스 도와드립니다.



대표 **곽민우**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곽민우 종합보험

KWAK & CHANG FINANCIAL INC.

Office : 703-750-2205, 2206

Fax : 703-750-2207

Email : kcfinancial.info@gmail.com

7369 McWhorter Pl. #420, Annandale, VA 22003



100년 전 창경궁 온실 아래, 비운의 역사가 숨신다



“한국어는 소수 언어라 작가들 사이에 애선(번역이 쉽도록) 단문으로 써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강 작가님은 쉽지 않은 문체에, 한국적 배경이 두드러지는 작품을 쓰시잖아요.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으로 ‘아, 그냥 마음껏 써도 되는구나’ ‘내 몸에 익혀져 있는 한국어의 체질대로 써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뻐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이야기하는 김금희(45) 작가 목소리는 한껏 밝았다.

김금희 신작 『대온실 수리보고서』 일제 때 숨겨진 사건 둘러싼 이야기 20년간 논문·회고록 취재해 고증 “슬픈 기억도 건축물처럼 수리해야”

창경궁 내 대온실을 배경으로 한 새 장편소설 『대온실 수리보고서』를 낸 김금희(45)는 “기억과 직면해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권혁재 기자



됐다. 그 결과, 책 말미에 8쪽의 ‘참고문헌’이 실린 소설이 됐다. “파면 팔수록 봐야 할 자료가 생기더라고요. 건조한 논문이나 보고서 안에서 사람의 숨소리를 살려내야 했어요.”

영두가 머문 낙원하숙 주인(문자 할머니)을 통해 해방 이후 한국에 잔류한 일본인 여성의 삶도 그린다. 역사를 되살리기 위해선 당시 일본인의 삶을 파헤쳐야 했다. 단단한 서사가 바탕을 이루는 가운데, 그 시간을 건너뛸 ‘마음’을 형상화하는 작가의 장기도 여김 없이 발휘된다. 영두는 보고서를 만들며 “통째로 버리고 싶던” 과거를 직면하고 화해한다. 그리하여 “발을 내밀면 잠시 아무것도 없는 공중인 것도 같았지만, 허방을 짚는 듯한 실패감은 느껴지지 않았다”(375쪽)고 말하게 된다. “사람들은 아프거나 슬픈 기억을 그냥 지우고 폐기하려 하죠. 하지만 그걸 끌어내 수리하고 다시 해석하는 일이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한 나라나 세계의 아픈 역사도 마찬가지 아닐 겁니다.”

이영희 기자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인 작가 중 한 명이 김 작가다. 최근 발표한 신작 장편소설 『대온실 수리보고서』(창비)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품이다. 전작 『너무 한낮의 연애』 『경애의 마음』 등이 마음속 섬세한 무늬를 감각적인 언어로 포착해 공감을 끌어냈다면, 이번엔 이야기의 힘으로 독자를 붙잡는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발표 전인 지난 7일 만난 김 작가는 “그동안 등장인

물의 내면과 트라우마를 형상화하는데 골몰했다면 이번에는 이야기가 전면에 나서는 소설을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데뷔 15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역사소설이다. 제목의 ‘대온실’은 1909년 한국 최초의 서양식 온실로 지어져 100년 넘게 원형을 유지하는 창경궁 내 대온실이다. 30대 여성 영두가 대온실 보수 공사의 백서 작성을 맡으면서 이

야기는 시작한다. 창경궁 인근에서 사촌기를 보낸 영두는 수리 과정을 지켜보다 접어두고 싶었던 기억과 마주한다. 대온실을 설계한 일본인 후쿠다 노보루(실제 인물은 후쿠바 하야토)의 사연, 일제강점기 창경원에서 일어난 비밀스러운 사건 등이 흥미진진하게 얽혀든다.

김 작가는 출판사 편집자였던 20대에 창경궁 대온실을 만났다. “공과 관

련한 책을 편집하던 중 찾았던 창경궁에서 갑자기 쏟아진 비를 피하느라 대온실을 바라볼 기회가 있었죠.” 이질적인 빛을 뿜던 건물의 사연이 궁금해졌고, 마음속에서 ‘굴러가기 시작한’ 이야기가 글로 나오기까지 20여년이 걸렸다.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고증이였다. 일본어판만 있던 후쿠바의 회고록을 번역해 읽고, ‘한국 동물원 80년사’ 같은 자료도 꼼꼼히 살

계약 만료 앞둔 손흥민, 다음 소속팀은 바르셀로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곧 복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토트넘 손흥민. [손흥민 SNS 캡처]

토트넘, 계약 연장에 미온적 태도 바르셀로나, FA로 손 영입 관심 스페인 매체 “협상 중” 이적설 확산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 손흥민(32·토트넘)의 이적 관련 루머가 잇따르고 있다. 소속 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 토트넘 홋스퍼가 계약 연장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유럽 언론도 이적 가능성에 무게를 실는 모양새다.

최근 손흥민의 유력한 차기 행선지로 떠오른 팀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명가 FC 바르셀로나다.

지난 11일 스페인 매체 엘나시오날은 “데쿠 바르셀로나 디렉터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바르셀로나는 심

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선수 보강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없다. 현실적인 대안은 실력 있는 자유계약(FA)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다. 내년 6월 토트넘과 계약을 마치는 손흥민은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인 의 또 다른 매체 카르페타스 블라우그라나도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정규리그와 컵 대회를 포함해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그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면 커리어에 ‘우승’을 추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또 “구단 입장에서 다 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경험과 스피드·테크닉을 겸비한 손흥민이 여러모로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상업적인 측면에서 아시아 시장을 개척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덧붙였다.

손흥민 관련 이적설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유럽 언론의 보도가 줄을 이었다. 올 시즌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과 연결되는 분위기다.

손흥민의 이적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토트넘 구단이 계약 연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토트넘과 손흥민의 계약은 내년 6월 끝난다. 당초 토트넘이 2~3년 정도의 재계약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최근엔 감감무소식이다.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하곤 아르나르 하랄손(윌), 하비 푸아도(에스파뇰) 등 손흥민의 역할을 대체할 선수 영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잇따른다.

정작 손흥민 본인은 덤덤하다. 에이징 커브(나이에 따른 기량 저하)를 우려하는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 시즌에도 차분히 주장 겸 골잡이 역할을 소화 중이다. 2016~17 시즌 이후 지난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토트넘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손흥민은 내년 6월 FA 자격을 얻는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는 어느 팀과도 이적료 없이 사전 계약을 할 수 있다.

송지훈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 구글 스마트 쇼핑 |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 문자마케팅 | 유튜브광고 | 소셜미디어 | 웹사이트 제작 | 온라인 쇼핑물 | 이메일 마케팅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Ron: So how's by you?
란: 그래 잘 지내지?
Terri: Oh I'm okay. I like retired life. I come and go as I please.
테라: 응 잘 지내. 은퇴한 삶이 좋아. 맘 내키는 대로 하니까.
Ron: It must be nice to be able to do whatever you want with your day.
론: 하루 종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니 좋겠다.
Terri: It is. I'll be doing some traveling soon.

테라: 좋아. 조만간 여행도 좀 할 거야.
Ron: Oh? Where are you going?
론: 그래? 어디갈 거야?
Terri: Some of my friends and I are going to travel around Asia.
테라: 친구 몇 하고 아시아 쪽을 여행하려고.
Ron: That's great. Bring me back some chopsticks.
론: 좋네. 올 때 젓가락 좀 사다줘.
Terri: Will do. So how's the weather out there in Los Angeles?

테라: 알았어. 거기 LA는 날씨가 어때?
Ron: We've had quite a bit of rain lately.
론: 요즘 비가 꽤 많이 와.
Terri: We've had a lot of snow here in New York.
테라: 여기 뉴욕은 눈이 많이 왔어.
기억할만한 표현
▶ (so) how's by you?: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So how's by you Jim? I haven't spoken to you in a long time." (그런 그렇고 짐 잘 지내요? 서로 얘기를 나

눈 지도 오래됐네요.)
▶ (one) comes and goes as (one) pleases: (누가) 맘 내키는 대로 하다.
"My father just retired. He comes and goes as he pleases and he's loving it." (아버지는 은퇴하셨습니다. 맘 내키는 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아주 좋아하셔.)
▶ will do: (I will do that의 준말) 알았어요. 좋아요.
Jim: "Would you open the window? It's warm in here." (창문 좀 열어주겠어요? 여긴 덥네요.)
Roger: "Will do" (알았어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가로열쇠

(1) 설날 웃어른을 찾아뵙고 절을 하죠 (3) 같은 중심을 가지며 반지름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원 (5) 채로 쳐서 돌리는 전통 어린이 놀이 기구. 땅이나 얼음판에서 하죠 (7)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라고 나이가 드니 고향 생각이 더 난다 (9) 꽤거리의 우두머리. 도둑들의 ~ (10) 사람이 겨우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초라하고 작게 지은 집. 넓고 넓은 바닷가에 ~ 집 한 채 (11) 싸움에 이겼을 때 울리는 북 (12) 아버지 동생의 아내. 작은어머니 (14) 먹기 위해 잡은 신선한 물고기 (15)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도록 길이 나 있는 비탈진 곳. 이 ~만 넘으면 우리 외갓집이 있어 (17) 커다란 주머니에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넣어 높이 띄우죠 (20) 몹시 인색한 사람 (21)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남 모르게 다님. □복□□ (23)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재산 등을 물려받는 일 (24) 무시를 당하거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 (27) 단맛이 나는 약초 (28) 분노를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한 장치 (29) 우수한 작품

세로열쇠

(1) 손이나 얼굴을 씻음 (2) 김연경 선수의 국내 복귀로 그 효과를 누리고 있죠 (3) 어린이의 마음 (4) 수박, 참외 등의 발을 지키기 위하여 지어 놓은 막 (5) 머리를 삶으면 귀까지 익음. 한 가지 일이 잘되면 다른 일도 저절로 이루어짐 (6) 귀와 눈. 주이나 관심. 올림픽에 세계의 ~이 총집중돼 있다 (8) 젊었을 때 겪는 고생. ~은 금 주기도 못 산다. ~은 만년(晩年) 복이라 (10) 무릎의 구부러지는 오목한 안쪽 부분 (11) 엘리베이터 (13)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다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 한결같이 ~로 일관하였다 (16) 연못이나 논이 물위에 떠서 자라는 물풀. 겉은 풀색이고 안쪽은 자주색이다. 부평초 (18) 담배의 피리가 모자라서 개꼬리모 이음. 훌륭한 것 뒤에 보잘것없는 것이 뒤따름 (19) 착한 행실. ~을 베풀면 복을 받는단다 (22) 잠을 자려고 할 때나 잠이 깨었을 때 때를 쓰며 우는 것 (23) 겉면에 무늬를 새기고 금, 은, 자개 등 다른 재료를 끼워 장식하는 기법 (24) 찬동하여 도와줌 (25) 얼굴에 나타난 건강색. ~가 환하다 (26) 정보를 몰래 알아내어 넘겨주는 사람

스도쿠

9	8	3		7	6	5	4	
			9		3			
2				1	8			
	3	7			2			8
6		5	7					
		9	4	5				2
8						7		3
7			8			4		



자료제공=올드북 (www.gobook2.com)



문제가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5	9	4	6	3	8	2	1	7
3	6	7	1	2	9	4	5	8
2	8	1	7	5	4	6	9	3
6	1	3	4	8	7	5	2	9
4	2	7	5	9	3	8	6	1
8	5	9	2	6	1	7	4	3
7	3	6	8	1	5	9	4	2
9	2	8	3	4	6	1	7	5
1	4	5	9	7	2	3	8	6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EXP. DATE: / /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금주의주제 힘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MARYLAND • VIRGINIA • TIDEWATER • RICHMOND

2025 메디케어 등록안내

2025년에는 가지고 계신 메디케어 어드벤처지(Part C)와 약보험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비교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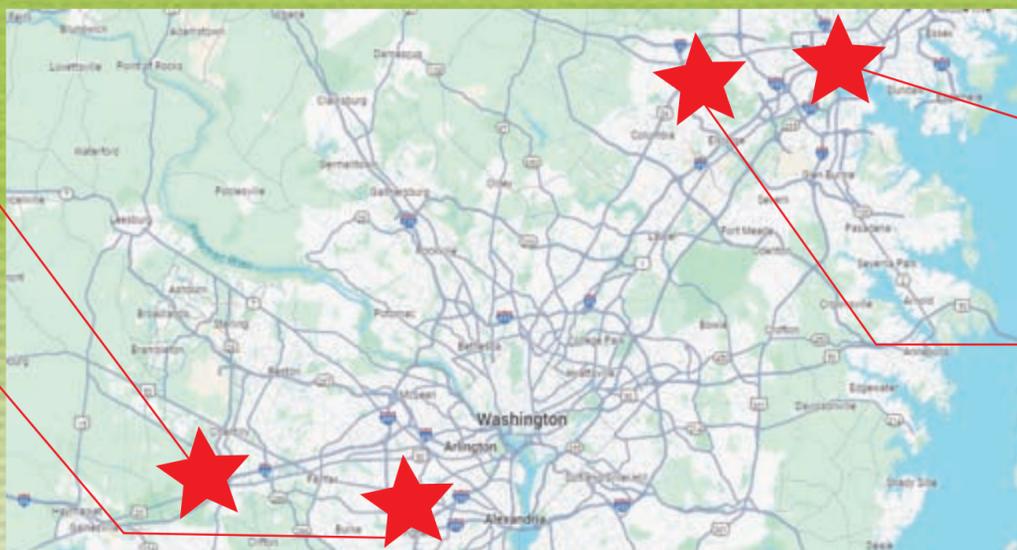
상담예약: 703-973-5900

* 매주 토요일 상담합니다 [예약에 한함]

매주 토요일 9AM~4PM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만남의 장소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12월 7일



센터빌

14631 Lee Highway, #214,
Centerville, VA 20121
던킨 도넛 빌딩 2층

애난데일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볼티모어

425 E Federal St.,
Baltimore, MD 21202
Greenmount 시니어 센터

엘리콧시티

10176 Baltimore National Pike,
#201,
Ellicott City, MD 21042
시루와 같은 건물 2층



오 향 제
703-973-5900



Jenny Oh
703-642-0305



Elizabeth Kim
703-642-7578



Jennifer Chung
410-698-6877



Michelle Kim
703-337-0910

26년의 경험과 실력

코너스톤 종합보험

Fairfax

(703) 642-0305

Richmond

(804) 767-3714

Ellicott City

(410) 698-6877

Tidewater/Newport News

(757) 941-7216

10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우표수집에 관심이신
분 연락 바랍니다!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오랜동안 수집 해 온
(한국, 미국, 여러나라 우표)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더 좋은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구매부 0명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 ▶연매상 100만+25만
급하게 처리원함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AGENT 환영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332-2101(문자요망)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리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 지역, MD - 경험 많은 Handyman - Part Time Office 관리자 -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 지역, MD -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MD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동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제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 시간: 주 32~48시간 (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고출고 관리
- 시간: 주 48~52시간
-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서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 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메릴랜드 JESSUP-화장품출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화, 수, 목, 같이 일 하실분 구함 남녀 전부 환영 (문자요망) 443-991-9331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컷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사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티트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룬델밀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함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지휘 경력) -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콘도 방렌트

저먼타운 방1 옥실별도, 금연자 깨쓰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컷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홈 2층방/유포/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컷시티타운홈렌트매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싱글홈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열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1. 세라미스트 첫 3개월 연봉 12만 2. CAD/CAM 경력자 첫 3개월 연봉 6만 703-597-0955 (문자요망)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입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jwikim0111@gmail.com

도깨비 척추신경 병원 직원 구합니다. 페어팩스/파트타임, 풀타임 / 이중언어 가능/dkclinic@gmail.com 757-384-5757

▶▶1. LED Light 세일즈 2. Electrician 배우실분. 202-993-8870 (문자요망)

▶▶LORTON 헤어제품수입출세일창고에서 오전: 고객오더접수 오후: 노던버지니아 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hint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경력자 우대 합니다. Resume: skim@skimcpa.com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유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 경력자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이력서 ▶이력서: Janammio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티트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서: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 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공인 회계사무실(Annandale)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 채용 경험자 우대. 베네티트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Email: acct2014a@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첸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메니저 구함 -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 좋은 인성과 성실함 -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 Starting \$60,0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중앙일보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포츠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gang.co.kr
thkang@joong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리/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리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급,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토랑/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a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종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종언어 가능, 컴퓨터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포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소 원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할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시스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543-2320

식품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커보조구함(아근)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 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파/풀 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얼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소 등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포드 광통밴 냉장림,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매케닉, 준매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 플룸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RENTOR SALE
5543 Queensberry Ave,
Springfield, VA 22121
703-336-3283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받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골동품 이조기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 테런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종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종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박스배달요원을 구합니다.
애난델. 운전가능자
571-242-3736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말아서해주시분
(703) 473 6022.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처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종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녀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포츠 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애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합니다.
(알링턴 2마일, DC 7마일) 3층, 7베드룸과
7베스전체 7500+sf의 아름다운 집!
.크레딧 없는 분도 가능! 월 \$7,495.
703-244-3453

▶▶싱글홈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킴, 단독샤워, 와셔,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처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꾸민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깝음. 교통편리.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남여 직장인/유פו/\$8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깝음,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주5일 DELI
\$68,000

금매
렌트 \$3500 CAM포함.
주매상 \$5천

MD, PG카운티,
MGM에서 10분거리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쓰이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종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애난데일 큰주택 내의 단독 화장실 딸린 큰 방 렌트. DC까지 7마일. 집앞에 버스스탑 있음.
▶703-244-3453

셜약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1. 방장고, 간단가구 인터넷 출입문 별도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아난데일 한강위 방1/화1 즉시입주가능
703-395-4380

홀디포 뒤 방렌트 주차장 넉넉, 출입문 별도
571-237-3411

▶▶타운하우스 방1/욕실/유포 센터빌롯데근처
571-970-8048

▶▶아난데일 아파트/한강위/여자분원함 /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여자분원함
703-505-5698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아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처
703-307-2473

▶▶교통 편리한 아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스톤로드 선상-타운홈 안방+ Full Bath 금연자/단기 렌트 가능
929-424-2221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뒷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원함. 문자보내주세요.
571-345-8879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1. 아난데일 한강식당 뒤 싱글홈 방 렌트 돌침대/가구/화장실/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첼트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웨이웃 인터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 방 세놓음 남자분원함
703-344-6273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웨이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킴, 워셔, 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원함/문자바람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 근처 반지하 전체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아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 2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램블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은 Manassas, 병원, 사립문,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3, 화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3, 화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3, 화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 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킹 | DC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 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Seafood 매대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문,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대-\$38만(실바이어 Only)
571-242-3736

기타/구인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폴타임 내니를 구합니다!
703-822-7810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썬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버크레이크 힐터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더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귀국 관제로 가사일체를 헐값이나 무료로 드립니다. 허백련, 청진등 고미술 품과 돌침대 가재 도구 다수의 그림과 수백권의 책 무료로 드립니다
443 799 2124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을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Out), 텍메인 터너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차이당 / 매캐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콜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콜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드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프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시,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밀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질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 홈 Mr. 박
703-434-2810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하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앨런)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사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생활안내 줄광고 유료 게재요청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소독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건축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돌반지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LVT (Luxury Vinyl Tile)
·VCT (Vinyl Commercial Tile)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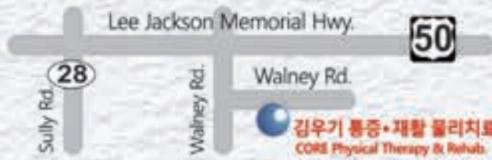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스시쉐프-폴타임**
경력자 우대
(951)225-2212

홀트 식물원
각종 한국과일
나무와 씨앗 / 각종모종
(909)625-4577
11602 Ramona Ave,
Chino, CA 91710

구인 매매

us.srotech.com
charcoal cedar **차콜온돌**
친환경탄소복합소재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사람을 찾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소식을
알 수 없는 이들을 찾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많이 위독합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소식 주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이름 : 심 종철
외국 이름 : Antonio 심
나이 : 1975년생
연락처 : 작은 아버지
(213)905-3874
(818)454-8332
Yongsok45@gmail.com

묘지 급매(주인)
2자리에 \$9,500(네고가능)
Glen Abbey Memorial Park내
무궁화 등산 한인묘소
위치 좋고, 전망 좋음
(818)515-0136 Mr.Jung

기타 지역

구인

아침 양식국/달리버리
특별우대, 숙식제공
가족같이 오래 계실분
알래스카 식당
(907)545-5933

기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
(Minas Gerais, Brazil)에서 생산된
최상의 품질 **Green Própolis**

미국FDA, Brazil SIF 승인 받은 제품
미국, 귀국 선물용 Wholesale Only (Min.dozen up)
Tel: (213)500-7363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힐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쓴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야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야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야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703-8809, pap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50**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벡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2024 야생 햇산삼을 소비자와 함께 공동 구매합니다.

야생 햇산삼 공동구매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심마니 가격 450g
한/정/판/매

- 대 \$1,400 (450g)
- 특대 \$1,800 (450g)
- 중 \$1,200 (450g)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어??!!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김 공급 및 가격으로 힘드시죠?

안전 **인증** **최고 맛** **최저 가격**

전국 최저 김밥김/스시김 한국산 취급 중국산 취급

한국산 고급 POS 종이 (한솔제지 최고급)
식당용 고급납킨
고급 대나무 젓가락 커스텀 디자인 제작

Hansol (50roll / Box)
Dokdo Supply (2Ply 3,000장)
Twin 9.0" (2,000개 / Box)
Tanwa 9.0"
Tenso 9.5"

ONE STOP 서비스로 POS 용지와 납킨과 커스텀 젓가락 디자인 취급합니다.

213.985.4200
DOKDOSUPPLY.COM

■ 김밥용 전장김 (100장, 50장) ■ 일식당용 반장김 (200장, 100장)
청해김은 2015년부터 DOKDO SUPPLY 회사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고급김 Brand로 현재 남가주에서 500여 곳 및 전국 일식당 1,000여 곳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독점 CENTREVILLE 싱글홈

방 5, 화장실 5.1/2 5,908SqFt
5.38Acres 에 자리잡은 멋진
캠브릿지 스타일 싱글홈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근접

\$1,799,000



독점 WOODBRIDGE 싱글홈

2 Car Garage, Formal Model House 방5/화3/1/2,
탁트인 강과 숲이 보이는 경치 Walkout Basement.
첫주인이 잘관리한 넓고 밝고 환한집

\$659,900



Contract

독점 FAIRFAX 타운홈

코스트코 근처, 2005년도 2 차고,
방3개, 화장실3 1/2, 3,220sq
잘 관리된 밝고 환한집

\$800,000



Contract

독점 MANASSAS 싱글홈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주택 방3/화2/1,755sq
New Floor, Updated Bath & Kitchen,
Large Deck & Fence. "NO HOA"

\$540,000



Contract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